

樂善齋 一廓 建築의 造營에 관한 復元的 考察

盧辰河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 대학원)

李相海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I. 序論

일반적으로 樂善齋로 불리는 樂善齋 一廓은 樂善齋, 錫福軒, 壽康齋 그리고 부속건물들과 後園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 낙선재 일곽의 건립 연대와 조영 목적 및 용도에 관하여는 아직 일치된 견해가 없는 편이다.

일찍이, 關野貞은 1902년 그의 『한국의 건축과 예술』에서 낙선재는 순조 11년(1811) 왕비의 殿으로 조영되었다고 하였고, 1963년 편찬된 『서울특별시사-고적편』에서는 낙선재를 憲宗 12년(1846)에 조영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기타 많은 글들은 낙선재가 현종 12년 또는 현종 13년에 조영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¹⁾ 그리고 낙선재의 조영 목적 및 건물 용도에 대하여는, 원래 후궁을 위해 건립되었으나 후에 국상을 당한 왕후들의 거처로 변한 것으로 보는 견해, 국상을 당한 왕후들의 거처로 보는 견해, 燕寢으로 보는 견해, 慶

嬪 金氏의 거처로 보는 견해, 선대 후궁들의 거처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²⁾

이상의 기존 연구에서 보듯이 관야정의 연구 외엔 모두 낙선재의 조영 시기를 현종 12년 또는 13년으로 보고 있으나 사료의 제시가 부족하고, 낙선재 일곽을 낙선재 영역, 석복헌 영역, 수강재 영역으로 구분하여 고찰한 연구는 적은 편이다. 조영 목적 또한 낙선재 일곽의 영역을 구분하여 논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 편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낙선재 일곽은 일제시대 이후 여러 부분이 변형되었고, 근래까지 조선 왕실의 후예들이 생활하였기 때문에 현대식으로 개수된 부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영 당시의 건축 모습에 대한 복원적 고찰은 아

1) 關野貞(1905): 『한국의 건축과 예술』, 강봉진(역) (서울: 산업도서출판공사, 1990), p.258;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1963): 『서울특별시사-고적편』 (서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p.149.

2) 문화재관리국(1977): 『문화유적총람』, 상권(서울: 문화재관리국), p.31과 김두현(1985): 『창덕궁의 건물들』, 『건축문화』 (1985. 1.), p.88; 장순용(1990): 『창덕궁』 (서울: 대원사), p.91; 정동오(1986): 『한국의 정원』 (서울: 민음사), p.171과 신영훈·장경호(1988), 『한국의 고궁건축』 (서울: 열화당), p.208; 김용숙(1987): 『조선조 궁중풍속 연구』 (서울: 일지사), p.431; 장순용(1994): 『세월의 뒤안길에 선 낙선재』, 『건축과 환경』 (1994. 5.), p.140.

직 미흡하다.

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낙선재 일곽의 여러 건축들의 조영 배경과 조영 시기, 그리고 조영 목적을 체계있게 규명하고, 동시에 낙선재 일곽의 조영 당시의 모습을 복원적으로 고찰하여 낙선재 일곽의 건축이 지닌 성격과 의의를 규명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II. 本論

조영 당시의 樂善齋 一廓의 건축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는 「宮闕志」, 「東關圖形」, 「東關圖」, 憲宗문집인 「元軒稿」에 실린 관련 상량문과 현존 건물에서 발견된 상량문, 「小癡實錄」, 「한국의 건축과 예술」 등이 있다. 그리고 낙선재 일곽의 건물 間數, 규모, 이웃한 건물과의 관계와 위치를 상관하여 볼 수 있는 오래된 기록으로는 고종 연간 편찬된 장서각장본 「궁궐지」가 있고, 배치도형으로는 「동궐도형」이 있다.

이들 자료를 간단히 살펴보면, 현존하는 「궁궐지」로는 순조(1800-1834) 승하 직후 上梓된 것으로 추정되는 규장각장본 「궁궐지」와 고종(1863-1907) 연간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서각장본 「궁궐지」가 있다. 「동궐도형」은 동궐의 전각들의 間을 나누고 각 실별로 기능을 적어놓은 일종의 배치도로서 1900년에서 1908년 사이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³⁾ 「동궐도」는 당시의 동궐 모습을 그린 조감도로서, 그 제작시기를 1991년 문화재관리국에서 발행한 「동궐도」에서는 1824년 8월을 상한선으로, 1830년 8월 1일을 하한선으로 보고 있으며, 이강근은 「가장 한국적인 궁, 창덕궁」에서 1828년 여름을 상한선으로 보고 있다.⁴⁾ 이 두 견해를 종합하면 「동궐도」 제작시기의 상한선은 순조 28년 여름이 되고, 하한선은 순조 30년 8월 1일이 된다. 이때는 순조의 왕세자인 익종이 대리청정을 하던 시기로서,

익종은 순조 27년에 대리청정을 시작하여 순조 30년에 승하하였다. 그러므로 「동궐도」는 익종의 대리청정 기간 중에 제작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錫福軒 上樑文」과 「壽康齋 重修 上樑文」은 낙선재 일곽의 복원공사를 시작한 1992년에 석복현과 수강재의 마룻대에서 각각 발견되었다.⁵⁾ 현종의 문집인 「원현고」에는 현종이 쓴 「樂善齋 上樑文」과 「壽康齋 重修 上樑文」이 있다. 「수강재 중수 상량문」은 수강재 마룻대에서 발견된 것과 앞부분만 약간 다르고, 기본적으로 그 내용은 같다. 또 「원현고」에 실린 상량문에는 상량한 연도만 기입되어 있지만, 건물에서 발견된 것은 연월일이 모두 기입되어 있어 정확한 연월일을 알 수 있다.

「소치실록」은 조선 말기 선비화가 小癡 許維(1809-1892)의 문집이다. 일종의 자서전으로 고종 4년에 쓴 「夢緣錄」과 고종 16년에 쓴 「續緣錄」으로 꾸며져 있다. 이 책에는 허유가 현종을 만나기 위하여 낙선재로 찾아간 대목이 기술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통하여 낙선재의 당시 모습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한국의 건축과 예술」은 원래 「조선건축조사보고」로 발표된 보고서로서, 일제시대 關野貞이 1902년 7월 5일부터 같은 해 9월 4일까지 우리나라 건축을 조사하여 1904년 간행하였다. 여기에 실린 낙선재 일곽의 사진들은 1930년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조선고적도보」, 제10권(pp.1421-1424)의 사진들과 같다. 따라서 이 사진들의 촬영시기는 최소한 1902년으로 올려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낙선재 일곽의 역사적 변천 과정, 조영 시기와 조영 목적 등을

4) 문화재관리국(1991): 「동궐도」(서울: 문화재관리국), p.46; 이강근(1994): 「가장 한국적인 궁, 창덕궁」, 「건축과 환경」(1994. 9.), p.128.

5) 낙선재는 해체하여 복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992년 복원공사 당시 낙선재의 상량문은 꺼내지 않았다고 한다. 문화재관리국 궁원관리과 이만희 기사와의 대담.

3) 장순용(1990), p.34.

복원적으로 고찰하여 보도록 한다.

1. 樂善齋 一廊의 역사적 변천 과정

(1) 樂善齋 一廊 造營以前的 附近一帶

낙선재 일곽은 昌德宮 正殿인 仁政殿의 동쪽에 있는 重熙堂 동쪽에 위치한다. 낙선재 일곽이 조영되기 전 중희당을 포함한 建陽門과 集英門 사이의 이 일대는 성종 16년(1485)에 창건된 창덕궁 東宮 자리였다.⁶⁾

창덕궁 동궁의 殿閣들로써 영조 40년(1764)까지 儲承殿을 중심으로 樂善堂과 德成閣, 時敏堂, 春桂坊, 進修堂, 藏經閣 등이 있었다.⁷⁾ 영조 40년에 저승전과 함께 소실되었던 창덕궁 동궁내의 대문 중의 하나인 貳樞門⁸⁾은 건양문 동남쪽에 위치하였는데 '貳樞'의 '貳'란 버금을 뜻하고 '樞'이란 임금의 자리를 뜻한다. 그러므로 '貳樞'이란 임금의 버금가는 자리 즉, 왕세자의 자리를 말하며 이 문은 왕세자가 사용하는 문이다. 그러나 낙선재 일곽이 조영된 후엔 낙선재 일곽의 문으로 헌종이 사용하게 된다. 저승전은 건양문 밖에 위치하였고 낙선당은 저승전 동쪽에, 시민당은 수강재 동쪽·저승전 남쪽에, 진수당은 시민당 북쪽에, 장경각은 진수당 동쪽에 위치하였다.⁹⁾

그 후 영조 40년에 저승전이 소실된 후 동궁의 주요 전각들은 정조 6년(1782)에 이르기까지 재건되지 않는다.¹⁰⁾ 그런데, 정조 6년은 文孝世子가 탄생한 해이다. 문효세자의 탄생은 정조가 왕위에 오른지 6년만의 경사였고, 또한 동궁이 없었던 때라 이를 계기로 동궁의 堂으로서 重熙堂을 영건한¹¹⁾ 것으로 추정된다. '重熙'란 '重光'과 같은 뜻으로 '임금의 버금가는 빛' 즉, 왕세자를 지칭하

는 말이다. 문효세자가 3살이 되던 해인 정조 8년 왕세자의 책봉식을 중희당에서 했고,¹²⁾ 孝明世子 익종은 대리청정 기간 동안 중희당에서 정무를 보았다.¹³⁾ 즉, 중희당은 왕세자의 정당이였다.

익종은 壽康齋를 별당으로 사용하였고,¹⁴⁾ 수강재 남쪽에 있었던 重光院은 세손의 侍講을 감독하던 곳,¹⁵⁾ 중희당 서쪽의 誠政閣은 왕세자가 宵箴하던 곳이었다.¹⁶⁾ 수강재 동쪽과 남쪽의 춘방

7) 儲承殿이 있었던 때는 규장각장본 「궁궐지」(서울사료총서 제3권, p.87)의 기록 “儲承殿在建陽門外…成宗十七年丙午改稱春宮”으로, 時敏堂과 進修堂, 藏經閣이 있었던 때는 「인조실록」 26년 3월 丙亥[28일]條의 기록 “…時敏堂과 進修堂, 藏經閣 등치는…새흙을 다시 바르게 하소서.” 등으로 알 수 있다. 창덕궁 동궁의 전각들은 「영조실록」 32년 5월 戊辰[1일]條: “樂善堂은 곧 왕세자가 있는 正堂이었다.”, 「궁궐지」(p.86): “時敏堂…卽世子宵箴之正堂”, “進修堂…英宗四年戊申十一月 眞宗大王昇遐于此”, 「한중록」, 樂[제2권]: “영묘(영조)께서…원랑(장헌세자)을 얻자…저승전이라 하는 큰 전각으로 옮기시게 하니 저승전인즉 본디 동궁이 들으시는 전이요, 그 곁에 강연하실 낙선당과 소대하실 퇴성합과 동궁이 수하 받으시고 회강하시는 시민당이 있고 그 문 밖에 춘계방이 있으니 장성하시면 동궁에 달린 집인고로 어른 같이 저승전 주인이 되게 하신 성의인지라.” 등의 기록으로 알 수 있다.

8) 「영조실록」 40년 12월 乙未[18일]條.

9) 「궁궐지」, pp.86-87.

10) 「영조실록」 32년 5월 戊辰[1일]條, 40년 12월 乙未[18일]條 및 「정조실록」 4년 7월 己丑[13일]條에 관련 내용이 나옴.

11) 重熙堂…正宗六年壬寅建 (「궁궐지」, p.44).

12) 「정조실록」 8년 8월 乙酉[2일]條.

13) 「순조실록」 27년 2월 甲子[18일]條, 7월 丁卯[24일]條, 28년 6월 戊子[20일]條, 8월 壬申[5일]條, 8월 甲戌[7일]條, 10월 己丑[23일]條, 12월 丁丑[12일]條, 29년 1월 丙申[1일]條, 1월 戊午[23일]條, 30년 4월 己巳[11일]條.

14) 순조 27년…聽政處所正堂以重熙堂爲之 別堂壽康齋爲之 (「文獻備考, 禮考, 政令」, 영인본, p.80).

15) 「궁궐지」, p.86.

6) 「성종실록」 16년 2월 丙辰[4일]條: “임금이 建陽門 밖에 나아가 東宮의 터를 살펴보았다.”, 「정조실록」 8년 8월 戊子[5일]條: “임금이 하교하기를, ‘구례에는 東宮의 閣門은, 昌慶宮의 경우는 集英門이고…’”, 「성종실록」 16년 2월 乙卯[3일]條, 2월 丙辰[4일]條, 2월 戊辰[16일]條 등에 東宮 조영을 논의하는 내용이 나옴.

과 진수당, 장경각은 「동궐도」에 그려져 있어 익종 승하 전까지 소실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수강재 서쪽 공지에 있는 重華門은 왕세자가 사용했던 것으로 이 공지에 낙선재가 조영되는데, 그 후 이 곳을 헌종이 사용하였다. ‘重華’란 ‘거듭 빛난다’라는 뜻으로 왕의 뒤를 이을 왕세자에게도, 이미 왕위에 올라 있는 임금에게도 합당한 문의 이름이다. 「동궐도」에는 중회당 북동쪽으로 단청을 하지 않은 天地長男之宮 一廓이 있다. 편액의 내용들로 보아 왕세자의 생활공간으로 판단되는 곳이다. 규장각장본 「궁궐지」에는 순조 30년에 소실된 迎春軒을 순조 33년에 다시 지을 때 長男宮을 헐어 사용했다는 기록¹⁷⁾이 있는데 여기서의 장남궁이 천지장남지궁 일곽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일대가 헐린 후 동쪽 터에 헌종 연간 낙선재와 석복헌의 후원이 조영된다.

당시에 낙선재와 석복헌이 영건될 터는 동궁의 전각이었던 낙선당이 소실된 후 영건되지 않아 빈터로 남아 있었다. 이 빈터 동쪽에는 익종이 별당으로 사용했던 수강재가 있었다.

그런데, 창덕궁 동궁은 임금과 중전의 거처와는 달리 주인이 없는 경우가 많아 다른 기능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특히, 창덕궁 동궁을 사용할 왕세자가 없었을 때는 東朝¹⁸⁾ 즉, 대왕대비나 대비가 사용하였다.¹⁹⁾

예로써, 인종은 재위 원년 병환 중 창덕궁 동궁에 머물었는데, 대신들이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동궁 때에 계시던 곳을 위에서 스스로 평안하게 여기시나, 창덕궁으로 이어하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비께서 지금 昌慶宮의 景思殿에 나아가 밖에 계시니 이것은 미안한 일입니다. 예로부터 황후는 으레 東宮에 있는 것이므로 東朝라 부르는 것이니 이제 대비께서는 불가불 동궁으로 이어하셔야 합니다.” 이에 인종이 답하기를 “...내가 이어하도록 하겠다. 내가 이어하면 대비도 동궁에 이어하시게 될 것이다.” 하였다.²⁰⁾ 동궁에 이어하게 된 대비 文定王后(인종의 양모)는 명종 때에도 여러 차례 동궁으로 이어하여 기거하였다.

21) 숙종 9년(1683) 12월 5일[壬寅]에는 숙종의 어

머니인 明聖王后가 동궁의 저승전에서 승하하였다.²²⁾ 「한중록」에서도 莊獻世子가 저승전에 거처하기 전 이곳이 대왕대비가 오시던 집이라고 하였다.²³⁾

동조가 왕세자의 궁인 동궁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창덕궁 동궁이 조영되기 전 이 일대의 기능과 관련이 있다. 창덕궁 동궁이 조영되기 전 이 일대는 德壽宮²⁴⁾과 壽康宮의 영역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영조 44년 5월 22일[己酉]에 영조는 下番의 한림에게 건국 초기에 누각을 건립하였던 터를 상고하여 아뢰라고 하면서, “德壽宮은 지금의 時敏堂이고...”라고 하고하였다.²⁵⁾ 즉, 태종때 지은 태조궁인 덕수궁²⁶⁾ 터에 동궁의 시민당이 건립된 것이다. 또한 태조는 廣延亭 아래의 별전에서 승하했는데 후에 광연정의 터에는 동궁의 저승전이 건립된다.²⁷⁾

「정조실록」에는 정조 9년 8월 27일[甲辰] 이극문 안에 小齋를 세웠는데 이곳은 太祖朝²⁸⁾ 壽

17) 위의 책, p.104.

18) 「숙종실록」 12년 9월 壬寅[21일]條와 10월 戊寅[27일]條 및 「정조실록」 7년 3월 戊午[27일]條와 「순조실록」 15년 1월 壬寅[16일]條.

19) 漢나라의 동조의 궁인 長樂宮과 같은 것이 성종 15년에 두 대비인 昭惠王后와 安順王后를 위해서 영건한 昌慶宮이다. 즉, 昌慶宮이 東朝의 궁이다. 그러나 昌慶宮 東宮도 때에 따라 東朝의 궁으로 사용되었다.

20) 「인종실록」 원년 2월 乙卯[22일]條.

21) 「명종실록」 즉위년 12월 丙辰[27일]條, 10년 12월 乙未[5일]條, 12월 壬寅[12일]條, 12년 5월 甲戌[22일]條 및 20년 4월 丙子[10일]條.

22) 「숙종실록」 9년 12월 壬寅[5일]條.

23) 「한중록」, 樂[제2권].

24) 여기서 말하는 德壽宮은 현존하는 덕수궁이 아니라 태종 연간 태조를 위하여 조영되었던 덕수궁이다.

25) 「영조실록」 44년 5월 己酉[22일]條.

26)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1963), p.270.

27) 「궁궐지」, p.87.

28) 여기서 ‘太祖’란 고려 태조를 말한다. 세종 연간 태종의 소어처로 조영된 수강궁은 고려시대 南京 壽康宮터에 조영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

16) 위의 책, p.42.

康宮의 옛터로서 「여지승람」에 기재되어 있어 그 齋를 壽康齋라 명명한다고 기록되어 있다.²⁹⁾ 수강재는 이극문 안, 시뫼당터 서쪽에 위치하여 분명히 동궁지 내에 조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양위한 태종의 소어처였던 수강궁³⁰⁾의 일부도 후에 동궁의 영역이 된 것이다.

덕수궁과 수강궁은 모두 양위한 상왕과 대비의 소어처로서 조영되었다. 그러므로 이 일대가 동궁으로 바뀐 후에도 때에 따라 동조의 거처지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창덕궁 동궁 내에는 嬪의 처소가 영건된 경우도 있었다. 숙종 12년 9월 5일[丙戌]에 임금이 궁인 張氏를 위하여 별당을 짓는다는 소문을 듣고 李德成 등은 궁중 안에 집 짓는 일을 모두 중지하라고 아뢰었다.³¹⁾ 張禧嬪을 위하여 별당을 지은 것은 사실이어서 「숙종실록」 12년 9월 甲午[13일]條와 12월 庚申[10일]條에도 이에 대한 기록이 있다.³²⁾ 이때 영건된 건물이 就善堂으로 판단되는데, 취선당은 저승전 서쪽에 위치하였다. 취선당은 숙종 14년에 景宗大王이 탄생한 곳이기도 하고, 숙종 27년에는 장희빈이 이곳에서 仁顯王后를 저주한 곳이기도 하다.³³⁾ 「한중록」에서는 취선당이 저승전 뒤에 있고 후에 동궁의 燒廚房이 되었다고 하였다.³⁴⁾

종합하면, 동궁이란 왕세자의 궁이었지만, 창덕궁 동궁은 왕세자가 없어 동궁이 비었을 경우엔 대왕대비와 대비의 거처로도 사용되었고, 임금의 총애를 받던 嬪의 처소가 되기도 하였다. 그 후 헌종은 창덕궁 동궁의 전각들을 사용하고 동궁지에 자신의 燕窩와 후궁, 대왕대비의 처소를 조영한다. 이로써 창덕궁 동궁의 본래의 기능은 사라지고 창덕궁 동궁이 가지고 있었던 특수성 즉, 동조와 후궁의 거처로서의 기능만 남게 된다.

(2) 樂善齋 一廓의 조영 배경

낙선재 일곽은 헌종때 조영되었는데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헌종은 1834년 8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였는데, 헌종은 당시 위로 수렴청정을 행하던 대왕대비 純元王后(1789-1857)와 대비 神貞王后(익종비, 1808-1890)를 모시고 있었다. 헌종은 1840년부터 친정을 하기 시작하고, 그 후 대왕대비 純元王后는 헌종 14년에 육순을 맞는다.

수렴청정 기간인 헌종 3년 안동김씨[孝憲王后]를 왕비로 책봉하였으나 헌종 9년 승하하고 헌종 10년 흥씨[明憲王后]를 계비로 맞아드린다. 명헌왕후 흥씨에게 후사가 없자 대왕대비는 처자를 가려 嬪을 맞아 드리라고 헌종 13년에 하교하여, 같은 해 10월 20일에 광산김씨 김재청의 딸을 慶嬪으로 책봉하였다.³⁵⁾

「헌종실록」에 의하면 헌종은 재위 기간 동안 熙政堂, 誠政閣, 重熙堂을 便殿으로 사용하였다. 특히 중희당은 헌종이 1849년 후사없이 23세로 승하한 곳이기도 하다.³⁶⁾ 그런데, 회정당은 이전에도 宣政殿과 함께 便殿으로 사용되었으나³⁷⁾ 중희당과 성정각은 창덕궁 동궁의 전각으로서 왕세자의 공간이었다. 헌종은 왕세자가 거처했던 중희당과 성정각을 자신의 편전으로 사용하며 동궁지에 낙선재라는 자신의 연침과 후궁의 처소를 영건한다. 이때 창덕궁 동궁은 사실상 없어지고 다시 조영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른다.³⁸⁾

(3) 憲宗 승하 후 樂善齋 一廓

낙선재 일곽은 헌종 연간 燕朝공간으로 조영되

29) 「정조실록」 9년 8월 甲辰[27일]條.

30)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1963), p.224.

31) 「숙종실록」 12년 9월 丙戌[5일]條.

32) 「숙종실록」 12년 9월 甲午[13일]條, 12월 庚申[10일]條.

33) 「궁궐지」, p.88.

34) 「한중록」, 樂[제2권].

35) 「헌종실록」 3년 3월 乙未[18일]條; 9년 8월 乙丑[25일]條; 10년 10월 辛亥[18일]條; 13년 7월 乙未[18일]條; 13년 10월 丙寅[20일]條.

36) 「헌종실록」 15년 6월 壬申(6일)條.

37) 「궁궐지」, p.32, p.38.

38) 마지막 임금인 순종이 왕세자일 당시엔 景福宮이 景福宮 東宮과 함께 재건되어 있었다.

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21권, p.635참조.

어 현종 승하 후에도 왕실의 寢殿으로 사용되었다. 1917년 창덕궁 內殿이 소실되어 大造殿이 영건될 동안 순종과 윤비[純貞孝皇后]와 침전으로도 사용되었고,³⁹⁾ 순종 승하(1926년) 후에는 윤비가 이곳에서 은거하다 1966년 승하하였으며,⁴⁰⁾ 1962년 덕혜옹주가 일본에서 환국하여 이곳에서 생활하다 운명하기도 하였다. 1963년 환국한 영친왕 李垕도 이곳에서 생애를 마쳤고 영친왕비 李方子 여사도 이곳에서 1989년 운명하였다.

2. 조영 시기와 조영 목적

낙선재 일곽의 조영 시기와 조영 목적은 『元軒稿』에 실린 ‘낙선재 상량문’과 ‘수강재 중수 상량문’, 그리고 석복헌에서 발견된 ‘석복헌 상량문’과 수강재에서 발견된 ‘수강재 중수 상량문’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1) 樂善齋

‘낙선재 상량문’에 의하면 낙선재는 丁未年인 현종 13년에 상량되어 영건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낙선재의 영건 목적은 이 상량문에 나타나 있다

먼저, 낙선재가 누구를 위하여 영건된 것인지는 낙선재의 ‘樂善’의 의미가 담긴 문구를 통하여 파악될 수 있는데, 그 문구는 아래와 같다.

元은 仁이고 善의 으뜸이니 重天이 베풀어 드려나고 (元爲仁 善之長也 重天著闢戶之圖)⁴¹⁾

백성들이 편안하여 다 기뻐하니 많은 별들이 營室星을 감싸 도네…(民以寧 樂于胥兮 衆星環營室之次…)

(임금은) 선행을 보면 순임금과 같이 강물을 트듯이 결행하여 혼전(임금의 궁)에서 남풍가(백성을 위한 노래)를 부르는 교화를 펴고 (見善決河 薰殿敷歌風之化)

(백성들은) 즐겁게 못을 만들어 영대를 하루도 안되어 완성하였다는 祝頌을 올리도다…(歡樂爲沼 靈臺頌不日之成…)⁴²⁾

아름다운 임금이 위대한 것을 즐긴 도리들 어찌 동평왕에게서만 비유할 수 있겠는가. (在明后樂其大之

道 何曾取此於東平)⁴³⁾

오직 성인만이 선을 남과 더불어 하는 마음을 가졌으니 결코 선철들에게 전수되었네…(惟聖人善與同之心)⁴⁴⁾ 自有傳授於先哲… (말씀은 필자가 표시)

종합하면, ‘善’이란 元인 임금(당시의 임금은 현종이다)의 첫째 규범으로서 舜임금과 같이 주저없이 행하는 善을 말한다. 현종은 ‘선행을 행하는 것이 가장 즐거웠다.’는 東平憲王과 같이 私室에서도 선을 행하되 자신의 선하지 않은 것은 과감히 버리고 남의 선행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현종은 이러한 의미로 자신의 집 즉, 낙선재에 있을 때에도 ‘백성들과 함께 하는 마음은 문을 활짝 열어 놓은 것과 같이 활달하고, 킁킁한 방 구석에서도 남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도를 구하겠다.(與民同也 豁如心於洞開 有道求之尚不愧于屋漏)’ (‘낙선재 상량문’ 중에서)고 하였다.

‘樂’이란 임금이 선행을 행했을 때의 결과이다. 임금이 선행을 행하면 당연히 백성들이 즐겁고 그로 인해 임금도 즐겁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樂’은 임금이 선을 행하는 즐거움이다. 樂이 지니는 또하나의 의미는 백성들과 함께 하는 즐거움 즉, 文王이 자신의 靈囿를 백성들에게 개방하여 함께 즐긴 것과 같은 與民同樂이다. 낙선재의 中門도 이러한 즐거움이 영원하라는 의미에서 長

40) 문화재관리국(1977), p.31.

41) 『주역』 乾卦에 “건은 원하고 형하고 이하고 정하다.(乾元亨利貞)”하였고, “원운 선의 으뜸이다.(文言曰 元者善之長也)”라고 했으며, 本義에서 “원이란…계절로는 봄에 속하고 사람에서는 仁이고 모든 善의 으뜸이다.”하였다. 重天은 건괘를 이룸.

42) 못은 文王의 정원인 靈囿에 있는 靈沼를 말하고, 靈臺는 영유에 있는 臺를 이르는데, 여기서는 낙선재를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3) 『後漢書』, 『東平憲王傳』.

44) 舜은 더 위대한 점이 있었으니, 善을 남들과 함께 하는 것이었다. 자신이 선하지 않은 것은 과감히 버리고 남의 선행을 따랐다. (大舜有大焉 善與人同 舍己從人 樂取於人 以爲善) (『孟子』, 2편).

39) 김용숙(1987), pp.167-168.

樂門이라 하였다.

‘樂善’이란 결국 ‘선을 즐긴다’는 뜻으로 ‘樂’과 ‘善’ 각각은 위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다음으로, 낙선재의 영건 목적을 알 수 있는 문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남산에 대나무가 뿔뿔히 선 듯한 튼튼한 기반 위에,
편안하게 살 마음의 집을 짓고…(苞竹南山⁴⁵) 廓居
安之心宅…)

오른쪽은 평평하고 왼쪽은 층계로 자리를 연 곳에
비록 조정의 백관들이 가득 차겠지만 (闢右平左土戚
之位 縱有既盈矣朝),

위에는 부들자리 아래는 대나무자리를 칸 연석을 퍼
놓았으니, 어찌 편안히 휴식하는 일이 없겠는가. (設
上莞下簟之筵 詎無乃安⁴⁶)

비로소 동쪽 언덕으로 새 태양태자의 출생이 떠오
르고 있기에 (載於重熙東畔)

이에 새로이 몇 칸의 집을 짓게 되었다. (爰有新構
幾間)

즉, 현종은 자신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집을 영건한 것이다. 그런데 ‘비로소 동쪽 언덕으로 새 태양태자의 출생’이 떠오르고 있기에, 이에 새로이 몇 칸의 집을 짓게 되었다.’라는 문구로 보아 당시 후사를 위하여 嬪을 맞아들이게 되었으니 동쪽에 왕세자를 낳을 嬪의 처소를 마련하며 함께 몇 간의 집을 짓게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낙선재가 현종의 연침이라는 사실은 아래의 문구로 더욱 확실해진다.

좁고 붉은 흙을 바르지 않았으니, 이는 집을 너무
사치스럽게 하지 않은 것이고, (丹雘未塗 猶恐規模
之過度)

색칠한 서까래를 걸지 않았으니, 질박함을 우선으로
한 뜻을 보인 것이다. (采椽不斷 廓示敦樸以爲先)

오직 부지런히 흙으로 벽을 바르지만 했으니 집을
짓는 것으로 낙을 삼은 것이 아니었고, (惟勤塗茨
非爲悅志於宮室)

넓은 집에서 편안할 수 있게 되었으니 모두 벽성들

45) 『詩經』의 「詩, 小雅, 斯干」에 나오는 詩에서 따온 것이다. 이 시는 낙선재 상량문 뿐 아니라 석복현과 수강재 상량문에도 인용된 것으로 군자가 살 이상적인 거처를 읊고 있다. 낙선재 일곽의 조영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에게로 교화를 들리지 않음이 없도다. (大庇廣廈 莫
不歸化於庭簾)

이에 아름다운 명칭으로 집의 편역을 내리니 (隸以
屬字之編嘉)

실로 이름을 보면서 의를 생각함이다. (實爲顯名
而思義…)

꿩이 날아가는 것과 같은 제도로 집을 지어, (見鵲
鳥之良制⁴⁷)

편안하고 심원히 지내는 데에 매우 좋다. (作燕處
之孔安)

동벽에는 온갖 진귀한 서적들 빛나고 (東壁之藥珠
紅群玉煇輝)

서침에는 목은 나무 휘날려 창이 영롱하네. (西清之
槐龍舞絲八窓玲瓏)

잘 꾸며진 서적은 유양의 장서보다 많고 (瓊軼牙籤
簡冊多西陽之貯⁴⁸)

아름다운 비단 두루마리는 성상이 윤야에 볼 자료로
다. (繡甪錦軸 圖書備乙夜之資⁴⁹)

낙선재는 현종이 편안하게 기거하며 수장된 다량의 서적을 볼 수 있게 지어진 연침이다. 상량문에는 영건될 집의 건축제도를 이르고 있는데 마치 현재의 모습을 보고 읊은 듯하다. 이로써, 단청을 하지 않고 樓 위로 꿩이 날아가는 듯한 팔작지붕을 올리고, 낙선재 들레에 서화를 수장하는 행랑을 영건한 것 등이 당시의 건축의도였음을 알 수 있다.

小癡 許維는 현종의 부름을 받고 현종 15년에 다섯 차례 입궐하여 어전에서 그림을 그리고 왕실 소장품의 고화와 고서를 평하였다. 그 중 네번은 낙선재로 찾아가는데 당시의 상황을 「소치실록」에 기술하고 있다. ‘기유년(현종 15년) 정월 15일에야…입시했습니다.…낙선재에 들어가니 바로 상감 평상시 거처하시는 곳으로…’, ‘…상감께서는 열은 자주색 두루마기에 종당건을 쓰시고

46) 주 45)참조.

47) 주 45)참조.

48) 西陽은 중국 四川에 있는 산. 이 산에 석굴이 있는데 진 나라 사람이 이곳에 피난 와서 공부를 하여 책 천여 권이 있었다고 한다.

49) 乙夜는 二更 시각. 당 나라 문종은 “만약 甲夜까지 정사를 보고, 乙夜에 책을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임금노릇을 할 수 있겠는가.”하였다. (「杜陽雜編」).

비취옥권자를 달았는데 행전은 치지 않으셨으니 아마 사실에서 기거하시기 때문이었나 봅니다.⁵⁰⁾ 라고 하여 낙선재가 현종의 연침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낙선재 뒤에는 平遠亭이 있었습니다.'⁵¹⁾ 라고 기술한 것으로 보아 낙선재 후원의 平遠樓도 낙선재 일곽을 조영할 때 함께 영건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평원루에는 현재 上涼亭이라고 쓴 편액이 걸려있으나 「소치실록」에는 平遠亭으로, 장서각장본 「궁궐지」, 「동궐도형」에는 平遠樓라 기록되어 있다. 관야정은 「한국의 건축과 예술」(p.272)에서 평원루를 '樓亭'이라고만 지칭했다. 그러나 「조선고적도보」, 제10권(p.1424)에는 평원루를 '上涼亭'이라고 쓰고 있다. 이후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평원루를 상량정이라 하여 여름에 사용한 시원한 정자로 언급해 왔다.

「소치실록」에는 낙선재에 추사 김정희가 쓴 많은 편액이 걸려있었다고 하였다. '...좌우의 현판 글씨는 阮堂의 것이 많더군요. 香泉, 研經樓, 吉金貞石齋, 留齋(완당이 제주에 있을 때에 써서 판자에 새겼는데 바다를 건너다 떠내려보냈다가 일본에서 찾아온 것임), 自怡堂, 古藻堂(당은 낙선재의 앞과 좌우 3면을 두르고 있는 것으로 서화를 많이 간직하고 있었음)이 그것이었소.'⁵²⁾ 이 편액들의 뜻은 다음과 같다.

'研經樓'는 낙선재의 樓에 걸려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편액으로 이곳이 경서를 공부하는 곳임을 의미한다. '吉金貞石齋'란 길한 문서와 사람을 바른길로 이끌어주는 도서를 보관하는 齋란 뜻이다. 이 편액은 현존하는 것으로 1992년 현재까지 낙선재 大廳 안에 걸려 있었다. '自怡堂'이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수양하는 堂이란 뜻이다. '古藻堂'이란 화서를 보관하는 행랑으로 그 뜻은 옛 그림과 문서를 품평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편액 내용은 낙선재가 현종의 연침으로 조영되었음을 다시 한 번 입증해준다.

(2) 錫福軒

50) 허유: 「소치실록」, 김영호(편역) (서울: 서문당, 1976), pp.17-18, p.21 (원문: pp.169-170).

석복헌 상량문에는 '道光二十八年八月十一日'이라는 상량식을 행한 날짜가 기입되어 있다. 道光 28년이란 현종 14년으로, 낙선재가 영건된 이듬해이다. 상량문을 통해 '錫福'의 의미와 석복헌의 영건 목적을 파악해 보도록 한다. 상량문에 나오는 '錫福'의 의미를 담고 있는 문구는 아래와 같다.

규문에서 쓰고 나라에서 쓰니 治國平天下에 근본을 둔 것이고 (用之闕門用之國 本乎治平)
가정에 마땅하게 하고 백성에게 마땅하게 하니 많은 복을 주리라... (宜其家室 宜其民 錫效祉福...)
군자의 효행이 길이 그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것(錫)을 생각하고 (效以君子錫爾類之思)
서민들에게 오복(福)을 거두어 주는 것을 뜻하는 명칭을 내걸었도다. (爰揭庶民錫用歎之號) (밑줄은 필자가 표시)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왕실의 가정과 국사를 다스리는 일을 잘하여 왕실과 백성들이 모두 무고하니 하늘이 복을 내리리라는 것(錫福)이다. 국가의 대계인 왕세자가 탄생하여 군자의 효행을 길이 전할 수 있게 되면 이것 또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건물의 이름을 '錫福'이라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상량문에는 임금의 부인으로서 행할 도리를 알리는 문구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후왕이 내조의 공을 받으니 (后王資內助之功)
하늘이 두터운 복을 받게 하였네... (皇天俾單厚之報...)
돌아보건대 지금에 금슬이 자리에 있고 (願今琴瑟在御)
꾸민 비녀와 귀걸이로 경계하도다. (所禮簪珥矢箴)⁵³⁾
아침에 늦지 않게 깨워 안일하지 말도록 경계하고 (維屬54) 錫福55) 嚮福寔安之戒)

51) 위의 책, p.18 (원문: p.169).

52) 위의 책, p.18 (원문: p.169).

53) 옛날에 周나라 선왕의 비 姜后가 홀몸하고 덕이 있었는데, 선왕이 늦게 일어나자 비녀와 귀걸이를 벗어놓고 대죄하기를 "침이 부덕하여 왕으로 하여금 여색에 탐닉하게 하여 정사를 보는 데에 늦어지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列女傳」, 「賢明傳」).

후비의 덕으로 자손이 많을 것을 칭송한 노래 평화롭게 울리도다…(樛木⁵⁰蠡⁵¹ 洋洋和平之歌…)

부인이 임금을 모시면서도 임금이 정사에 소홀하지 않게 경계하고 덕으로써 내조하면 자손이 많아지고 하늘이 복을 내린다는 내용이다. 당시 현종의 부인은 明憲王后와 慶嬪金氏이다. 그러나 명헌왕후는 병으로 후손을 생산할 수 없었고, 당시 후손을 위해 새로 맞아드린 부인은 경빈김씨였으므로 위에서 말하는 부인이란 경빈김씨이다. 상량문의 주인공인 임금의 부인이 경빈김씨라는 것은 득남을 기원하는 문구로 확실해진다.

오색무지개 기둥을 감도니 祥瑞(아기를 낳을 것을 지칭)를 내릴 약속이로다…(文虹繞棟 卽生祥下瑞之期…)
 하늘이 장차 난실에 계시를 허려는데, 대인이 짐을 치니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였고…(天將啓於闈室 大人占之夢熊…)
 그 중에선 먼저 의남초를 얻는 것이 좋다네…(就中先要得宜男⁵⁹)…)

석복헌은 낙선재와 수강재 사이에 영건되었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궁궐에 있으면서는 왕을 받들어 시중드는 일에 어김이 없고 (在宮承雍和之盛 喜市祝之無違)
 아침 저녁으로 어버이에게 문안드라는 일을 거르지 않다. (問寢候晨夕之安 惠起居之與接)
 이에 수강재 오른쪽에 터를 잡고 (肆乃 測主於壽康之右)
 낙선재 동쪽으로 건물을 연이었네. (嗣屋於樂善之東)

즉, 후사를 위해 책봉된 경빈김씨는 임금의 부인으로서, 대왕대비의 손부로서 그 역할을 다하여야 하기 때문에 임금과 대왕대비가 가까이 거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석복헌을 영건한 이유는 아래의 문구에 잘 나타난다.

54) 知子之來之 雜佩以贈之 知子之順之 雜佩以問之 知子之好之 雜佩以報之 (「鄭風, 女曰鷄鳴」). 남편이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부인이 자신의 갑패(허리에 차는 다섯 가지 옥)까지 나누어 남편을 내조하겠다는 시.

새 집을 비로소 건축하니, (新宮肇建)
 아름다운 정조가 저절로 오도다…(休徵自來…)
 이 집이 우뚝하게 서면 (大壯既隆)
 집안의 사람들 다 기쁘고 (家人⁶⁰胥喜)
 (새 집을) 훌륭한 부인에게 주어서 연매계사 올려 상서로운 일 열고 (女士⁶¹ 啓休饋於燕禮⁶¹)
 왕모에게서 복을 받아 장수를 누리고…(王母受效 享遐齡於鮒背…)

훌륭한 부인을 맞이하면 그의 덕으로 집안은 물론이고 모든 것이 다 바르게 되고 왕모(할머니)에게서 복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종사의 큰 일인 왕세자의 탄생을 위하여 훌륭한 부인에게 집을 지어주고 상서로운 일 즉, 왕세자의 잉태를 바란다는 것이다. 위에서 말하는 훌륭한 부인이란 당시 후손을 위해 간택된 경빈김씨이고 새 집이란 그녀가 거처할 석복헌이다.

낙선재와 마찬가지로 석복헌 상량문에도 건축 제도를 말하는 문구가 있다.

55) 鷄既鳴矣 朝既盈矣 非鷄則鳴 蒼蠅之聲 東方明矣 朝既昌矣 非朝則明 月出之光 (「齊風, 鷄鳴」). 훌륭한 왕비가 임금에게 일찍 일어나서 조정의 일을 보라고 권면한 시.
 56) 南有樛木 葛藟荒之 樂只君子 福履綏之 南有樛木 葛藟荒之 樂只君子 福履將之 南有樛木 葛藟荒之 樂只君子 福履成之 (「詩, 周南, 樛木」). 왕비가 덕이 있어 못 침들이 기뻐하여 칭송한 내용의 시.
 57) 蠡斯羽 詵詵兮 宜其子孫 振振兮 蠡斯羽 薿薿兮 宜其子孫 繩繩兮 蠡斯羽 揖揖兮 宜其子孫 螽螽兮 (「詩, 周南, 蠡斯」). 후비에게 자손이 번성함을 칭송한 시.
 58) 주 45)참조.
 59) 풀 이름 萱草의 별명. 임신한 여자가 허리에 차면 사내아이를 얻는다고 함. 부인이 사내아이를 많이 얻기를 축송하는 말로 씀. (「風土記」).
 60) 巽上卦, 離下卦가 家人卦이다. 괘의 九五와 六二가 제각기 中正을 얻었기 때문에 '가인은 여자가 바르면 길하다.'하였다. 이는 먼저 안을 바르게 하라는 것이다. 안이 바르면 밖도 역시 바르다. (「周易」).
 61) 燕禮: 매는 아들을 구하는 제사 이름. 제비는 陽에 감응하여 알을 낳아 새끼를 치기 때문에 재비가 오는 날 매제사를 지냄.

집 모습 청아하고 고고하여 흡사 신선의 집과 같고
(體勢清高 恍乎如雲階月紀)
규모는 정교하여 어느새 아름다운 집이 열렸네…(規模精巧 忽焉開闢金闕…)
마치 경건하게 선 듯한, 마치 화살이 끈게 나는 듯한, 마치 새가 깜짝 놀란 듯한, 마치 쟁이 날 듯한 집을 지어나…(斯翼斯赫 斯飛斯赫…)⁶²⁾

석복헌은 집의 형세가 마치 사람이 경건하게 서 있는 듯하고, 가옥의 모퉁이가 반듯하고, 지붕이 우뚝하고, 처마가 화려한 아름다운 집이다. 이러한 석복헌이 청아하고 고고하여 마치 신선의 집과 같음을 말하는 내용이다.

(3) 壽康齋

수강재는 정조 9년 8월 27일[甲辰] 태조때 수강궁의 옛터에 영건되었다. 당시 수강재는 동궁의 영역이었으므로 익종은 대리청정 기간 동안 수강재를 별당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헌종 14년에 대왕대비의 거처로 중수된다. 이는 수강재가 영건될 당시의 성격(양위한 태종과 대비의 소어처로 조영되었던 수강궁터에 같은 이름으로 조영)과 창덕궁 동궁의 특수한 기능(동조의 거처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수강재가 대왕대비의 거처지로 중수되었다는 것은 『원헌고』에 실려있는 상량문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수강재 중수 상량문’도 헌종이 지은 것으로 『원헌고』에는 ‘丁未’(헌종 14년)라고만 기록되어 있으나 건물에서 발견된 상량문에는 ‘道光二十八年八月十一日’이라고 쓰여 있다. 즉, 석복헌과 영건 일자가 같다. 상량문에 나오는 ‘壽康’의 의미를 담고 있는 문구는 아래와 같다.

서민들에게 오복을 주니 長壽와 康寧이다…(願庶民 綿汝九五福 曰壽曰康…)
삼백육십오일 해가 지나 보력이 수성 자리에 이르니
(三百有六旬 寶曆紀曆星之次)
팔십일만세를 누리 잔치에서 강로의 술잔을 올리리
…(八十一萬歲 法筵進康老之盃…)
영험이 있는 아홉 가지 단약은 백성들에게 장수의 비결로 널리 배울고, (靈丹九選 普施壽民之要訣)

격양가 노래 소리는 아래로 강구(태평성대를 의미) 요에 화답하리. (擊壤一唱 俯和慶雲之希音) (일같은 필자가 표시)

‘壽康’이란 백성들에게 복록 중의 으뜸인 장수와 강녕을 내린다는 뜻이다. 복록을 주는 왕모도 장수와 강녕을 누리야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수강재 외행각에는 協祥門이 있는데 ‘協祥’이란 길상과의 합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문을 사용하는 왕모에게 장수와 강녕이 영원하라는 바램이 담겨 있다.

상량문의 내용 전체가 왕모의 수강을 기원하는 것이다. 그중 헌종이 할머니 純元王后를 위해서 수강재를 중수한 이유를 말하는 문구는 아래와 같다.

아, 우리 자전께서는 (猶我慈殿)
우리 왕실의 훌륭한 선 증전, (思宗室之嫻)
성스러운 지존의 짝이 되었다. (配聖人之尊)
아름답고 유순하고 공손한 풍도는 규문에서부터 드러났고, (徽柔懿恭之風 自闈門而闈發)
포괄적이고 빛나고 큰 덕은 평원을 두루 다 적셨다. (含弘光大之德 遍絃壤而闈瀟)
이미 내외의 공이 크게 드러나니 (既陰功之不彰)
하늘의 아름다운 징조가 끊임없이 오리라. (宜天休之滋至)
오직 나 소자(헌종 자신을 말함)는 (惟予小子)
신앙의 전통을 공손히 이어받아 (恭承堂構)
비로소 어머니 처소로 달려가서 (載趨庭闈)
한 나라 장락궁(東朝의 궁)에서 기쁘게 한 일을 본 받아 제후 왕으로서 봉양을 하고 (漢長樂之歡愉 粗效千乘之養)
노 나라 비궁과 같은 잔치를 열어 삼봉의 시(장수를 기원하는 시)에 비하려 한다. (魯歸宮之燕喜 擬追三朋之詩)
서늘함과 따뜻함을 알맞게 하는 방도에 정성과 힘을 다하고 (伊寒暄節濶之方 盡誠力之攸到)
아침에 문안하고 저녁에 잠자리를 살필 즈음에 한 걸음이라도 어갈까를 두려워하였다. (當晨昏定省之際 忍跬步之或違)

즉, 왕실의 훌륭한 慈殿을 봉양하기 위하여 수강재를 중수한다는 것이다. 위 내용의 주인공이 헌종의 어머니인 神貞王后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수강재에서 발견된 상량문에는 ‘아, 우리 자전께서는…송 나라 왕실의 여중요순과 같도다.(猶我

62) 주 45)참조.

慈殿…允矣宋室女堯) (수강재에서 발견된 ‘수강재 증수 상량문’ 중에서)라고 하였다. 女中堯舜이란 송나라때 수렴청정을 한 宣仁太后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지칭하는 자전이란 현종 연간 수렴청정을 한 순원왕후로 보아야 옳을 것이다. 또한 아래의 문구는 순원왕후에 합당한 것이다.

이곳은 노인을 받들어 모시는 집이니 (所以奉老之堂)

축복하는 의의를 표하노라…(寓此祝釐之義…)

대궐문을 활짝 열어 짓히고 화목하게 손자의 재물을 즐기고…(海漸濯龍之門 融融含飴⁶³)之樂…)

수강재는 노인의 집이며 그 노인이란 정사에서 물러나 증손자를 보며 지냈던 馬皇后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수강재의 주인은 신정왕후가 아니라 순원왕후인 것이다. 또한 수강재가 증수된 당시는 순원왕후가 육순을 맞이한 때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수강재는 순원왕후를 위하여 현종 14년 증수된 것임이 확실하다. 수강재의 건축제도는 아래와 같다.

낙선재 곁에 집을 세우게 되었고 (有齋於樂善之傍) 수강재라는 편액을 걸게 되었다. (揭匾以樂善之號)

단아하고 아름다운 방과 전당을 옛 제도대로 증수하고 (闢方桂殿 因舊制而重修)

휘황찬란한 천정과 창은 새로이 정교하게 꾸몄도다…(藻井綺疏 運新巧而增飾…)

산을 등지고 물에 임한 자리에, 터는 대나무가 뿔뿔이 선 것처럼 본뜬하고 건물은 소나무가 무성한 것처럼 정밀하니 (秩秩斯干 猶竹苞而松茂)⁶⁴

크고 우뚝한 우리 집 천지와 함께 장구히 가리라. (渠渠我屋 願地久而天長)

낙선재 일곽은 위의 문구같이 북쪽에는 높은 동산이 있고 남쪽에는 연못이 있는 곳에 조성되었다. 수강재는 낙선재와 석복헌과는 달리 「동궐도」에 그려져 있는데로 아름답게 단청을 한 집

으로 위에서 말하는 천정이 1992년 현재까지 남아 있었다. 수강재의 후원 동산에는 翠雲亭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이것은 일곽의 건물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숙종 12년에 영건되었다.⁶⁵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으나 낙선재 일곽 조영 전에 이미 영건되어 있어 「동궐도」에도 그려져 있다.

「헌종실록」과 「일성록」에는 현종 13년 9월 丙申[20일]條에 대내에 새로이 집을 짓거나 증수하는 것을 삼가라는 朴晦壽의 상언 내용이 있다.⁶⁶ 여기서 말하는 공사가 낙선재 일곽의 조영 공사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같은 해 낙선재가 영건되고 다음해 수강재가 증수된 것으로 보아 상언 당시 낙선재 영건 공사는 진행 중이었고 수강재의 경우는 적어도 증수 공사 계획이 잡혀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박희수가 상언한 9월 20일은 경빈김씨가 책봉되기 전이므로 당시의 조영공사와 계획이 낙선재와 수강재에 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낙선재의 상량문에 나오는 왕세자의 탄생에 관한 내용으로 보아 낙선재를 영건할 때에도 왕세자가 탄생할 집 즉, 嬪의 처소에 대한 조영계획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석복헌의 위치가 낙선재와 수강재 사이이고 행랑이 세 건물을 함께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면 세 건물의 계획은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종합하면, 육순을 맞을 대왕대비와 곧 책봉될 嬪을 위해 수강재와 석복헌의 조영계획은 현종 13년 낙선재와 함께 이루어졌으나 낙선재가 먼저 영건(현종 13년)되고 석복헌과 수강재는 그 다음해인 현종 14년(8월11일)에 영건, 증수된 것이다.

3. 복원적 고찰

(1) 立地

63) 조모가 손자를 데리고 한가하게 노는 것을 이름. 「후한서」에서 마황후가 “내가 옛을 물고 손자를 어르면서 지낼 것이고, 다시는 정사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吾但當含饴弄孫 不能復關政矣)”하였다. (「後漢書」, 「馬皇后紀」).

64) 주 45)참조.

65) 「궁궐지」, p.85.

66) 「헌종실록」 13년 9월 丙申[20일]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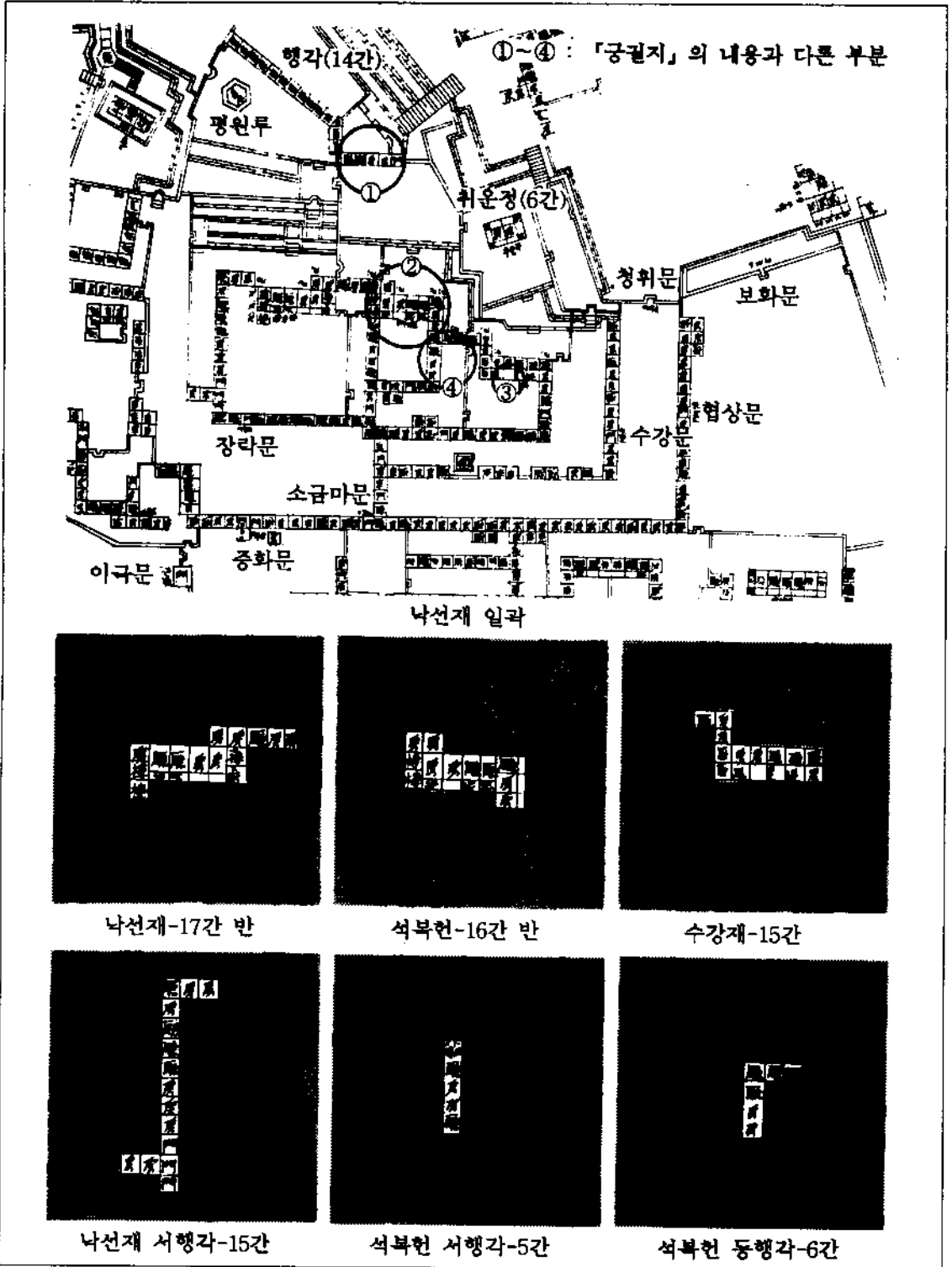


그림 1. 「궁궐지」의 내용과 비교한 「동궐도형」



낙선재 남행각-12칸



석복헌 남행각-7칸 반



수강재 동행각-4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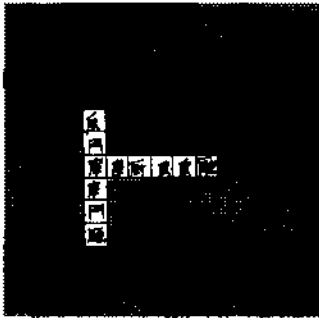
낙선재 외행각-15칸



석복헌 중행각-13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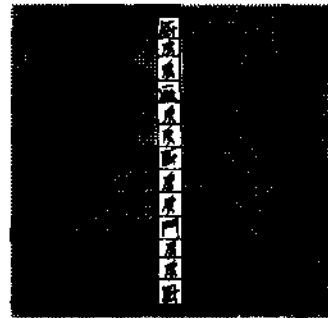
수강재 남행각-7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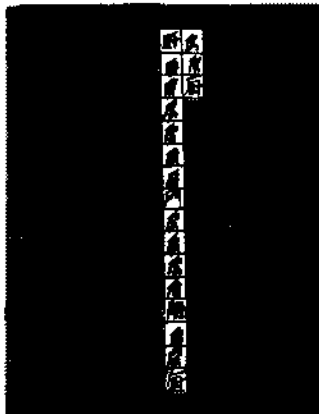
석복헌 외행각-11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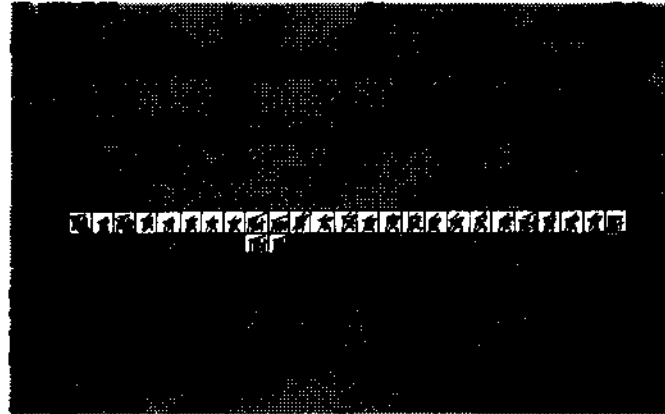
수강재 중행각-7칸



수강재 중행각-13칸



수강재 외행각-19칸



수강재 외행각-27칸

낙선재 일곽이 조성된 터는 「동궐도형」과 「동궐도」에 그려져 있는 건물들 즉, 낙선재 일곽이 조성되기 전후에 모두 존재하는 주변건물들(三三窩, 小宙合樓, 翠雲亭, 壽康齋, 進修堂, 藏經閣, 集英門, 光禮門, 蓮池, 貳極門, 多技門, 崇德門, 建陽門, 石渠廳, 隆孝門 등)로 당시 상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동궐도」를 보면 수강재의 서쪽 담장으로 둘러싸인 곳에 빈터가 보이는데, 낙선재와 석복헌은 바로 이 빈터에 영건된 것으로 판단되고, 천지장남지궁 일곽의 터에는 평원루와 낙선재 북행랑을 비롯한 낙선재·석복헌의 후원이 조성되었다. 따라서 낙선재 일곽은 중회당과 집영문 사이에 위치하여 창덕궁 동궁지에 조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규장각장본 「궁궐지」와 장서각장본 「궁궐지」에는 낙선재 일곽이 昌慶宮條에 기록되어 있고, 중회당 일곽에 대한 기록은 두 책이 다르다. 전자는 昌德宮條에, 후자는 昌慶宮條에 기록되어 있다. 중회당 일곽과 낙선재 일곽이 모두 동궁지이나 익종 승하 후 왕세자가 없어 동궁의 위상이 불분명해졌다고 생각되는데, 규장각장본 「궁궐지」는 익종이 승하하고 얼마 되지 않아 상梓되었기 때문에 익종의 중심공간이었던 중회당 일곽만을 창덕궁 동궁으로 보아 창덕궁조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장서각장본 「궁궐지」가 편찬된 고종 연간에는 이미 창덕궁 동궁이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중회당 일곽과 낙선재 일곽을 모두 창경궁조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낙선재 일곽은 창덕궁 영역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낙선재 일곽이 창덕궁 동궁지에 조성되기는 하였지만 동궁이 아니라 임금의 연침, 후궁과 대왕대비의 처소 즉, 연조공간으로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두 「궁궐지」에서 기록한 대로 창경궁 영역으로 보아야 옳을 것이다.

낙선재 일곽은 창경궁내에서도 북쪽에서 동남쪽으로 내려오는 높은 동산으로 주변과 자연스럽게 구분이 되는 지형을 한 곳에 자리하고 있다. 낙선재 일곽은 이 동산과 앞의 나지막한 또다른 동산 사이에 조성되어 지형상으로도 하나의 영역을 이루는 곳임을 알 수 있다. 낙선재 일곽이 조

영된 터는 북쪽과 서쪽이 높은데, 특히 북쪽은 동산으로, 「동궐도」에서도 많은 화계를 만들어 건물의 터를 닦았음을 볼 수 있고 남쪽에는 원래 연못이 있었다.

(2) 配置·平面

낙선재 일곽의 배치·평면을 고찰하기 위하여 먼저, 제작 시기가 비슷한 장서각장본 「궁궐지」와 「동궐도형」을 비교한 후, 「동궐도형」과 「현재 배치도」를 비교하고, 그리고, 「궁궐지」와 「현재 배치도」를 비교한 다음, 마지막으로 낙선재 일곽의 배치와 평면 내용을 분석하도록 한다.

장서각장본 「궁궐지」에는 낙선재 일곽의 건물의 위치와 규모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樂善齋 十七間半 二間五樓 有懸寶蘇⁶⁷⁾ 柱長八尺二寸 樓通二間八尺式 道里通六間八尺式 前退四間⁶⁸⁾
 南行閣 十二間 內有長樂門
 西行閣 十五間
 外行閣 十五間 內有重華門 以東小金馬門 以北邊有六隅亭 卻平遠樓 以北
 行閣 十四間 以東有
 錦繡軒 十六間半 二間五樓 柱長八尺二寸 樓通十兩尺 前退四尺 道里通六間八尺式 後退四尺
 東行閣 七間
 西行閣 五間
 南行閣 七間半
 中行閣 十三間
 外行閣 十一間 以東有
 壽康齋 十五間 二間五樓 柱長八尺二寸 樓通十兩尺 前退四尺 道里通六間八尺式 後退四尺 以北有
 翠雲亭 六間
 南行閣 七間
 中行閣 七間
 外行閣 二十七間
 東行閣 四間 內有壽康門
 中行閣 十三間
 外行閣 十九間 內有協祥門 以西北間牆一角門濟卿門 以東北間牆一角門善和門及重華門 以西邊有貳極門 一間⁶⁹⁾

67) 「寶蘇堂」이라는 편액은 현재에도 현종의 침실이었던 낙선재 동은실 외벽에 걸려 있다.

68) 이하 퇴의 폭 단위는 모두 尺으로 기록하고 있고 현재 낙선재 앞퇴의 폭도 4척이므로 尺을 間으로 잘못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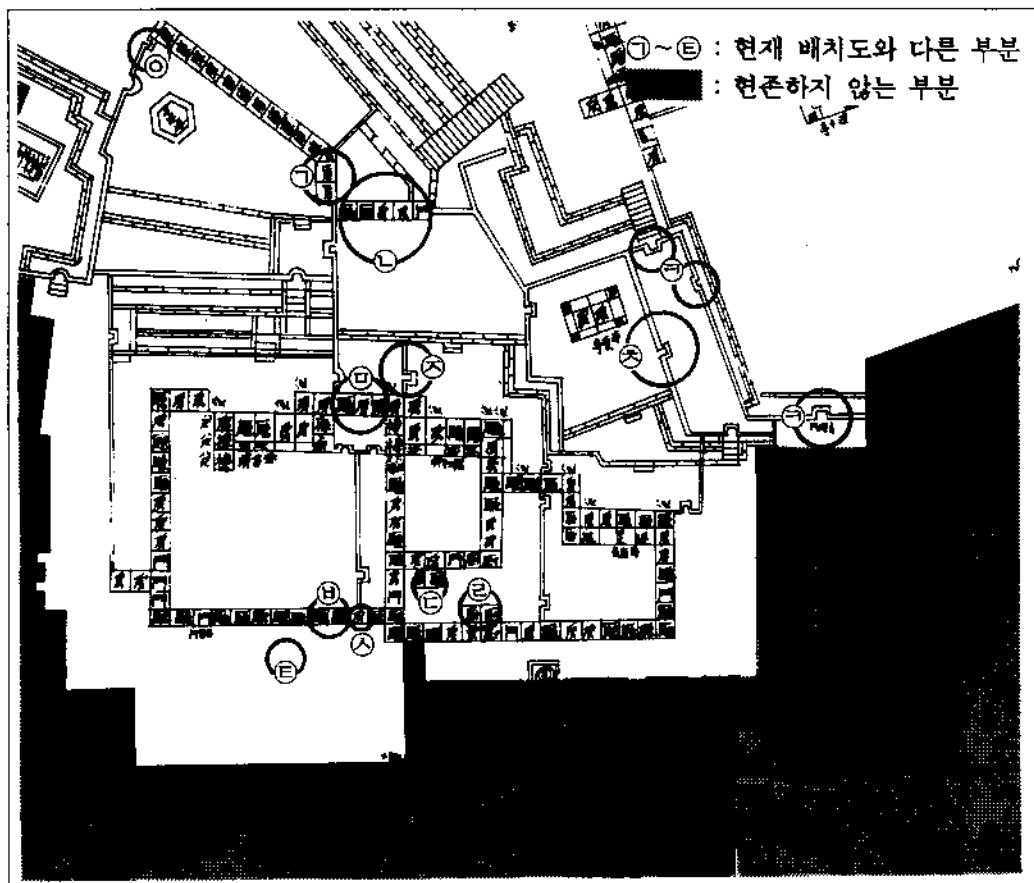


그림2. 현재 배치도와 비교한 「동궐도형」

그러면 먼저, 장서각장본 「궁궐지」와 「동궐도형」의 내용을 비교하여 보도록 한다.

장서각장본 「궁궐지」의 기록과 「동궐도형」에 나오는 낙선재 일곽의 건물의 위치와 규모는 기본적으로 두 자료가 일치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째, 「동궐도형」에 그려져 있는 석복헌 후원의 5칸 규모의 건물(「그림1」의 ㉠)이 「궁궐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둘째, 석복헌의 도리간 규모가 「동궐도형」에는 6칸 반으로 그려져 있고(「그림1」의 ㉡) 「궁궐지」에는 6칸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현존하는 석복헌의 도리간 규모는 6칸 반이다. 셋째, 수강재의 뒷간이 「

궁궐지」에는 4척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동궐도형」에는 1칸으로 그려져 있다.(「그림1」의 ㉢) 그런데, 현존하는 수강재의 뒷간은 4척 크기이다. 넷째, 석복헌의 동행랑의 間數가 「동궐도형」상에서는 6칸(「그림1」의 ㉣)인데, 「궁궐지」에서는 7칸으로 기록되어 있다. 「궁궐지」대로 건물의 행랑을 구분하면 현존하는 건물은 6칸 규모이다.

다음으로, 「동궐도형」과 「현재 배치도」를 건물의 위치, 규모, 실의 기능, 정원 등과 연관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물의 위치는 「동궐도형」과 현재 배치도가 같다. 둘째, 건물의 규모는 차이가 많이 난다. 우선 없어진 행랑들이 많다. 현재 남아 있

69) 「궁궐지」 (장서각 장본, 고종 연간 편찬), pp.54-56.

는 낙선재 일곽은 「그림2」 「동궐도형」에 표시하였다. 남아 있는 낙선재 일곽에서도 변한 부분이 많다. 낙선재 북행랑 3칸(「그림2」의 ㉠)이 없어졌고 석복헌 후원의 5칸 규모의 건물(「그림2」의 ㉡)도 없어졌다. 이 자리엔 현재 閒靜堂이 있다. 낙선재 서행랑은 철거되고 일제시대에 지어진 현대식 건물이 들어섰는데, 복원공사로 서행랑이 다시 영건되고, 또 석복헌과 수강재의 대부분 행랑들이 현대식으로 개수되어 있던 것도 1992년 현재 복원되었다.⁷⁰⁾

「동궐도형」에 의하면, 낙선재와 석복헌의 연결채 2칸 반(「그림2」의 ㉢)이 그려져 있는데, 1992년 복원 공사 때 영건 당시의 것이 아니고, 그 후 몇달아낸 실들로 판단되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낙선재와 석복헌의 도리는 모두 밖으로 돌출되어 뚫어진 상태이고, 연결채의 굴도리는 낙선재와 석복헌의 도리 아래에 붙어 있으며, 연결채 안에 있었던 낙선재와 석복헌의 초석과 기단은 모두 잘 다듬어진 것들이다. 또, 낙선재의 부연과 평고대가 연결채 지붕 속에 그대로 있었으며, 석복헌의 추녀는 끝이 잘려진 채로 연결채의 지붕 속에 있었다. 연결채의 목재도 낙선재·석복헌·수강재의 것과 다른 것이었다고 한다. 만약 이 연결채가 낙선재 일곽 조영 당시의 것이라면 낙선재와 석복헌의 도리가 연결채까지 이어져야 한다. 또 부연대신 회첨부연을 사용하고 회첨추녀를 걸어서 마감해야 한다. 초석과 기단도 다듬은 돌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⁷¹⁾

셋째, 실의 기능은 현재와 대부분 일치하는데, 단, 「동궐도형」에 그려진 낙선재 남행랑의 廳 2칸(「그림2」의 ㉣)이 현재는 房으로, 房 1칸(「그림2」의 ㉤)이 현재는 廳으로 되어 있다.

70) 없어진 석복헌 남행랑의 廳 1칸반(「그림2」의 ㉣)과 석복헌 중행랑의 廳 2칸(「그림2」의 ㉤)은 1992년 복원공사 때에 「동궐도형」과 같이 복원하려 했으나 몇달아내지 않고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영 당시의 것이 아닌 것으로 결정하고 복원하지 않았다고 한다. 문화재관리국 궁원관리과 이만희 기사의 증언.

넷째, 정원의 차이점은 화계와 담장, 문, 우물이다. 현재의 화계는 「동궐도형」에 그려진 화계와 그 모습이 다르다. 「동궐도형」에서는 낙선재 후원의 화계를 4단으로, 석복헌 후원은 기단과 같이 외벌대로 쌓고 모서리부분만 1단의 화계가 있다. 수강재 후원의 화계는 1단이고 모서리부분만 2단이다. 낙선재 후원의 화계는 「동궐도형」내용과 1단 차이가 난다. 「동궐도형」과 제작시기가 비슷한 1902년 전후에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고적도보」, 제10권(p.1422)에 실린 사진에서는 현재와 같은 모습의 화계를 하고 있다. 석복헌과 수강재 후원의 화계는 사진이 없어 비교할 수는 없으나 한정당이 지어지고 취운정 옆의 담장이 철거되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다시 조영된 것 같다. 「동궐도형」에 그려진 평원루 서쪽의 낙선재 북행랑과 접해 있는 閤門(「그림2」의 ㉥)과 석복헌 후원의 담장과 합문(「그림2」의 ㉦), 취운정의 동쪽담장(「그림2」의 ㉧)과 3개의 합문(「그림2」의 ㉨)은 현재 없다. 「동궐도형」엔 우물 하나가 수강재 남행랑 밖에 위치하는데 지금은 이것 외에 낙선재 남행랑 밖에도 우물이 있다.(「그림2」의 ㉩)

세번째로 장서각장본 「궁궐지」와 「현재 배치도」의 보간, 도리간, 뒷간의 폭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궁궐지」에는 낙선재의 보간이 8척, 도리간이 8척, 앞퇴의 폭이 4척으로 기록되어 있고, 석복헌의 보간은 10척, 도리간은 8척, 앞퇴와 뒤퇴의 폭은 모두 4척으로 되어 있으며, 수강재는 석복헌과 같다. 그런데, 현재 낙선재, 석복헌, 수강재는 보간과 도리간이 모두 똑같이 8척이다. 석복헌과 수강재의 보간에서 2척(약 622mm) 차이가 나는 것이다. 퇴의 폭은 모두 4척으로 「궁궐지」의 기록과 같지만 낙선재에는 현재 뒷퇴도 있다.

장서각장본 「궁궐지」와 비교하여 현재 배치도 상에서 주건물과 행랑을 구분하여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석복헌과 수강재를 「궁궐지」와 달

71) 문화재관리국 궁원관리과 이만희 기사와의 대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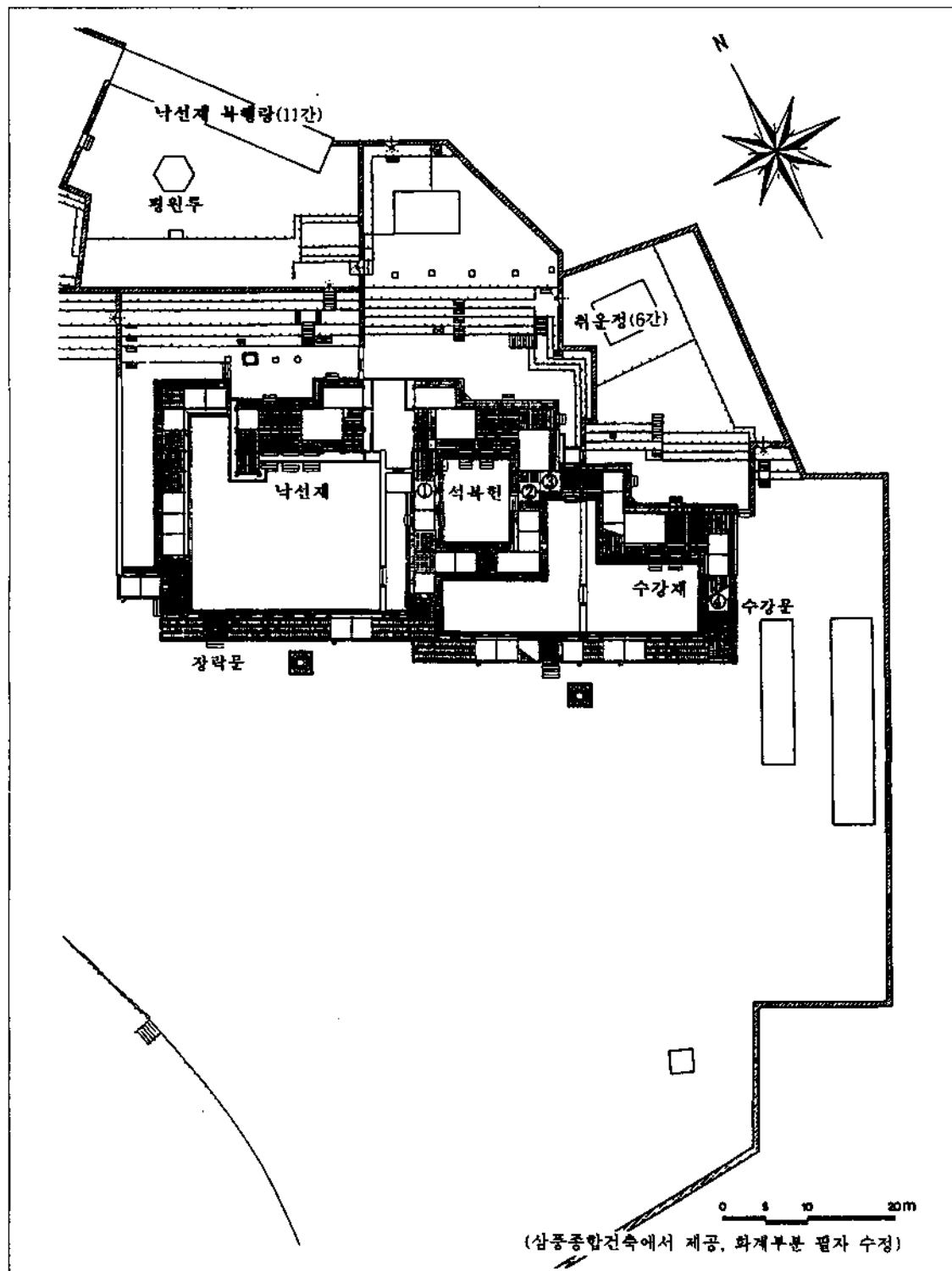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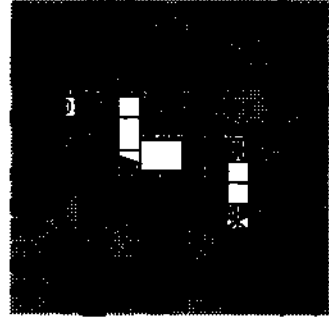
그림 4. 『궁궐지』의 내용과 비교한 현재 배치도



낙선재-15칸



석복현-20칸



수강재-18칸 반



낙선재 서행랑-15칸



석복현 서행랑-3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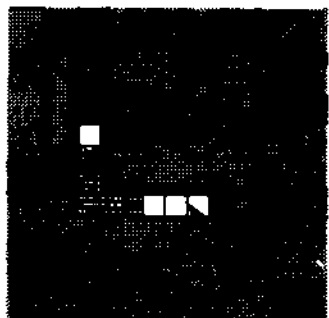
석복현 동행랑-3칸



낙선재 남행랑-12칸



석복현 남행랑-6칸



석복현 중행랑-11칸



수강재 동행랑-2칸



수강재 남행랑-7칸

리 「그림3」와 같이 규정한 이유를 번호별로 고찰하여 보도록 한다. ①과 ②에서 기단이 낮아져 아래쪽 건물 전체가 낮게 연결된다. ①·②를 경계로 위쪽은 소로수장집, 아래쪽은 그보다 격이 낮은 민도리집이다. 위쪽은 막새기와를 사용했으나 아래쪽은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①·②를 경계로 위쪽은 석복헌이고 아래쪽은 행랑이다. 수강재는 서은실에서 석복헌까지 연결되어 있다. 수강재의 지붕이 ③에서 석복헌의 지붕과 연결된다. 계속되던 樓마루가 ③에서 바닥이 높아지고 여기문이 달렸다. 그러므로 ③의 동쪽은 수강재이고 서쪽은 석복헌이다. 수강재 동은실의 다락이 ④까지이다. ①·②와 마찬가지로 ④를 경계로 건물의 높낮이가 달라지고, 위쪽은 소로수장집에 막새기와를 올렸고 아래쪽은 민도리집에 막새기와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④의 위쪽은 수강재이고 아래쪽은 행랑이다. 이상의 비교 내용을 바탕으로 주건물과 행랑을 구분하고 間數를 계산하면 「그림3」와 같다.

네번째로 낙선재 일곽의 배치를 「동궐도형」을 바탕으로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⁷²⁾

낙선재 일곽의 주건물과 평원루는 모두 丑坐未向 하고 있고, 행랑들은 未坐丑向, 辰坐戌向, 戌坐辰向 하고 있다. 이 좌향에서 벗어난 건물은 낙선재 북행랑(艮坐坤向과 寅坐申向의 사이)과 취운정(子坐午向) 뿐이다. 따라서 낙선재 일곽 전체로 본다면 丑坐未向 즉, 남쪽에서 서쪽으로 30도 가운 남서향 집이다.

낙선재는 중회당 일곽과 접하게 대지의 서쪽에 배치하고, 석복헌은 그 동쪽에 배치하여 수강재와 연결시켰다. 수강재는 가장 동쪽에 위치하여 창경궁의 다른 殿閣들의 진입이 매우 유리하다. 특히 석복헌과 수강재 후원의 동산에는 모두 합문을 내어 창경궁의 通明殿 一廊과 바로 통하게 하였다. 낙선재 후원의 동산에는 이쪽으로 향하는 합문은 없고, 중회당 일곽의 후원으로 출입할 수

있는 합문만 있다. 건물의 성격에 맞게 배치하고 문을 냈음을 알 수 있다.

낙선재와 석복헌, 수강재의 들레엔 행랑채가 이어져있는데, 그 안쪽에 석복헌만을 감싸는 행랑채가 있다. 이 외에도 석복헌과 수강재 들레에 행랑채가 또 있다. 이 행랑채 안쪽에는 우물이 있고 동쪽의 두칸은 측간이다. 그 바깥쪽으로 낙선재와 석복헌, 수강재를 모두 감싸는 행랑채가 있다. 이 행랑채의 중문이 重華門이다. 중화문 남서쪽으로 貳極門이 있다. 이로써, 주건물들은 모두 행랑채와 담장으로 첩첩이 싸여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거처지인 석복헌과 수강재에 더 많은 행랑채들이 둘러싸여 있고, 석복헌은 왕세자를 잉태할 후궁의 거처지였으므로 더욱 보위적인 배치양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석복헌의 안마당은 네면이 모두 건물로 둘러싸여 있고 다른 두 마당에 비하여 좁지만 낙선재 일곽에서 가장 깊고 고요하고 아늑한 공간이다. 석복헌은 ㄷ자형 건물인데 좌우로 행랑채가 이어져 ㄱ자형 평면이 한 영역을 이루게 된 것이다.

순원왕후의 처소인 수강재는 중문-壽康門이 동행랑에 위치하여 문을 들어섰을 때 정면에 수강재가 아닌 담장을 바라보게 계획하였다. 이것 또한 여성이 집주인이기 때문에 행해진 하나의 건축방법으로 볼 수 있다.

석복헌과 수강재와는 달리 낙선재는 독립건물로서 행랑채나 주건물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 또한 중문-長樂門을 들어서면 날을 듯한 처마선, 돌출한 樓와 함께 낙선재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게 계획되었다. 낙선재 뒤로는 우뚝 솟은 평원루의 모습까지 보인다. 이로써 낙선재는 당당하고 독보적이며 강한 이미지를 갖는다. 석복헌과 수강재의 마당에서 느끼는 공간감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이상 논의를 통하여 낙선재 일곽은 주건물별로 담장이나 행랑채로 구분되어 있고, 각각 독립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건물별로 진입 동선도 다르다. 낙선재 일곽의 대문인 이극문을 지나 중화문으로 들어서면 바로 앞의 장락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우측행랑채에 조영된 중문으로도

72) 본 연구에서는 영건 후 덧달아낸 것으로 추정되어 현재 철거된 부분은 「동궐도형」 상에서 없는 것으로 보았다.

들어갈 수 있다. 전자의 진입동선은 낙선재에 이르는 길이고, 후자는 석복헌으로 이르는 길이다. 석복헌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이 중문을 들어가 다시 좌측의 중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여기서 앞의 중문을 하나 더 들어가면 석복헌의 안마당이다. 수강재는 이극문이 아닌 동쪽의 협상문으로 들어가 중문 하나를 지나 수강문에 들어서면 이를 수 있다. 물론 곳곳에 중문과 합문이 있어 다른 방법으로 진입할 수는 있으나 이 진입동선이 주진입동선으로 추정된다.

낙선재와 석복헌, 수강재 뒤에는 동산까지 확장된 후원이 조성되어 있다. 주건물에서 떨어져 화계를 쌓고 화계 위 동산에는 樓나 亭子를 세워 조망할 수 있게 하였다. 후원도 역시 주건물별로 명확하게 세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서로 연결하는 공간들은 담장과 부속건물을 이용하여 구분되어 있고, 각각의 진입동선도 서로 달라하여 독립성을 지니게 되어 있다. 영역을 구분하는 모든 담장과 부속건물에는 합문과 중문이 공간이 분리되는 것을 막으면서 서로 연결시키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낙선재 일곽은 매우 자유로운 배치양식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건물들이 남북과 동서를 연결하는 정연한 격자를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엄격한 형식으로부터 벗어나 변화가 풍부한 공간 구성을 하고 있다. 세개의 주건물들이 옆으로 나란히 늘어서 중심축이 사라진 점과 다양한 평면의 조합은 낙선재 일곽이 주거공간으로 조영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배치평면도'를 통하여 복원적 고찰을 하여 보도록 한다. 낙선재 일곽의 주건물들은 평면의 구성요소가 같다. 모두 온돌방과 다락, 廳, 뿔마루, 樓, 아궁이방 등으로 되어 있다. 대청 2칸과 다락이 있는 온돌방 2칸을 기본으로, 또다른 온돌방이 있고 퇴가 달리고 樓나 廳이 연결되었다. 다락과 樓 밑은 모두 아궁이 방이다. 켄내에는 燒廚房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낙선재 일곽에는 아궁이방만 있고 부엌이 없다.

허유는 「소치실록」에 당시 현종이 낙선재의

동은실의 동쪽벽 아래에 있었다고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거기가 바로 동은실의 서북쪽 모퉁이였습니다...동쪽벽 아래 세겹의 병풍 앞이 바로 옥좌였습니다.'⁷³⁾ 현종의 옥좌가 있었다는 침실은 다락이 있는 온돌방인데 그 뒤에 또다른 온돌방이 있고, 창 밖 뿔마루에도 방풍과 보안을 위해 이중창을 달았다. 낙선재 일곽에서 이런 구성의 공간은 석복헌과 수강재에서도 볼 수 있다. 석복헌의 서은실과 수강재의 서은실이 그것이다. 낙선재의 동은실이 현종의 침실인 것으로 보아 경빈김씨의 침실은 석복헌의 서은실이고 순원왕후의 침실은 수강재의 서은실이라고 추정된다. 특히 낙선재와 석복헌의 침실은 똑같은 평면에 좌우만 바뀐 형상으로 마주하고 있다. 낙선재의 동은실과 석복헌의 서은실은 4면이 모두 창, 온돌방, 퇴, 다락으로 둘러싸여 있다.

낙선재가 평면내용상 석복헌·수강재와 다른 점은 樓의 성격에 있다. 석복헌과 수강재가 연결되는 부분인 루는 주위공간이 협소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계획되어 내향적인 반면 낙선재의 루는 마당을 향해 높이 올라 앉아 장락문을 들어서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다. 낙선재의 루 안에서는 마당과 남행랑, 서행랑을 모두 내려다 볼 수 있다. 낙선재 영역에는 측간이 없다. 임금은 변소 출입을 하지 않고 梅雨틀이라는 변기를 사용⁷⁴⁾했기 때문이다.

허유는 「소치실록」에서 '...古藻堂은 낙선재의 앞과 좌우 3면을 두르고 있는 것으로 서화를 많이 간직하고 있었다.'⁷⁵⁾고 기술하였는데 낙선재의 남행랑과 서행랑이 바로 古藻堂이라고 추정된다. 허유는 동쪽에도 고조당이 있다고 하였는데 담장 너머 석복헌의 서행랑을 보고 기술한 것 같다. 허유는 낙선재의 서북쪽 처마 끝인 '별대령소'에서 쉬었다⁷⁶⁾고 하였는데 이곳은 서행랑의 북쪽끝인 온돌방으로 추정된다. 「소치실록」에는 허유가 별대령소에서 창밖으로 현종을 본 것을

73) 허유, p.21 (원문: p.170).

74) 김용숙(1987), p.161.

75) 허유, p.18 (원문: p.169).

76) 위의 책, p.23 (원문: p.171).

기술하였다. '...창을 조금 열고 우연히 밖을 내다 보았더니, 상감께서 대령 하나를 거느리고 고조당에 들어가서 화갑을 내어 처마를 따라오시고 계셨습니다.'⁷⁷⁾ 서행랑의 북쪽 끝인 은돌방에서 창을 통해 내다보면 우측으로는 처마선이 이어진 서행랑(고조당)을, 정면으로는 남행랑(고조당)의 일부를 볼 수 있다.

평원루 뒤에 있는 낙선재 북행랑에서 1969년 많은 서책이 발견된⁷⁸⁾ 것으로 보아 이곳은 낙선재 영건 당시에도 서고였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평원루 가까이 서고를 두어 루 위에서도 서화를 즐길 수 있게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석복헌 후원에는 창과 방이 있는 건물을 영건했으나 현재 없다. 수강재의 후원에 취운정이 있다. 이 건물은 특이하게 은돌방을 중심으로 사방에 퇴가 달린 정자이다. 전망 좋은 동산 위에 위치하였으나 그 기능은 불분명하다.

(3) 構造體

낙선재와 석복헌, 수강재는 모두 1교주 5량집이다. 취운정과 낙선재 북행랑도 5량집이고 그 외의 행랑들은 모두 3량집이다.

낙선재 일곽에서 공포재를 쓰고 있는 건물은 낙선재와 평원루, 취운정이고 석복헌과 수강재는 소로수장집, 그 외의 행랑들은 모두 민도리집이다. 낙선재는 익공계건물로서 다포계인 평원루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소로수장집이나 민도리집보다 높은 격식을 지닌다. 낙선재는 끝을 둥글둥글하게 초각한 쇠서보아지 하나로 꾸민 초익공집이다.

장서각장본 『궁궐지』에서는 낙선재의 기둥높이를 8척 3촌으로, 석복헌과 수강재의 기둥높이를 8척 2촌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낙선재와 석복헌의 경우(낙선재의 기둥높이: 2580mm, 석복헌의 기둥높이: 2550mm)는 현재와 같고 수강재는 『궁궐지』의 기록과는 달리 2680mm 즉, 8척 6촌이다. 平遠樓(육각기둥)를 제외하고는 모두 방주를 사용하고 있다.

77) 위의 책, p.26 (원문: p.172).

도리는 현종의 연침 공간인 낙선재와 평원루에는 굴도리만 사용되었고, 석복헌과 수강재에는 굴도리와 납도리가 혼용되었다. 석복헌의 종도리, 중도리(둘 중에서 북쪽의 것)와 수강재의 중도리는 납도리이다. 석복헌과 수강재의 납도리 사용은 이 두 건물의 사용자가 낙선재의 사용자 보다 신분이 낮음을 상징한다. 행랑들은 모두 납도리를 사용하였다. 석복헌 어간의 종도리에는 용을, 수강재에는 봉황을 그려놓아 그것이 마룻대임을 보여주는데 1992년에 여기서 상량문이 발견되었다.

석복헌의 대공은 가로판대공이고 수강재의 대공은 키대공인데 반해 낙선재의 것은 초엽무늬를 새겨 넣은 파련대공이다. 이것은 대들보와 종보 밑의 초각된 보아지와 함께 일곽의 다른 건물에서는 볼 수 없는 이례적인 치장이다. 더욱이 대공은 반자 안쪽에 감춰짐에도 불구하고 파련초각과 첨차로 장식한 것이다.

서까래는 주로 통나무를 사용하였는데 취운정의 서까래는 각재로 되어 있다. 그 외의 건물들은 모두 둥근 서까래이며 낙선재의 서까래가 특히 굵다. 낙선재, 석복헌, 수강재, 취운정, 평원루의 귀서까래는 선자연으로 입면상에서 뿐만 아니라 처마를 올라다볼 때도 강한 연속성을 느끼게 한다. 낙선재와 석복헌, 수강재에서는 상연과 하연 끝의 교차부에 가는 싸리나무 몇 가지로 聯釘을 박았는데 이것은 쇠못이 없던 때에 사용한 것으로 당시로서는 보기 힘든 건축수법이다.

지붕형태를 보면, 낙선재 일곽의 주건물인 낙선재와 석복헌, 수강재는 팔작지붕이고 부속체인 행랑들은 맞배지붕, 평원루는 육모지붕, 취운정은 팔작지붕이다. 낙선재와 평원루는 부연을 달아 꾸민 겹처마로 처마가 깊고 다른 건물들보다 화려하다. 행랑을 제외한 건물들은 막새기와를 사용하여 서까래를 보호하였다. 낙선재와 평원루의 사례마구리, 석복헌의 추녀마구리에는 도금한 금구⁷⁹⁾

78) 문화재 관리국 궁원관리과 이만희 기사와의 대담.

79) 현재는 많이 부식된 상태지만 관아정은 『한국의 건축과 예술』, p.272에서 도금한 금구라고 적고 있다.

를 박아 보호하였다.

지붕의 경사도는 낙선재와 석복헌, 수강재 모두가 일치하고 낙선재의 지붕높이가 다른 두 건물보다 250mm 가량 높다. 석복헌과 수강재의 지붕높이는 같다. 합각머리에 용두를 올린 건물은 낙선재와 석복헌 뿐이고 평원루의 육모지붕 중앙에는 절병통을 올려놓았다. 낙선재와 석복헌, 수강재, 취운정의 합각부분은 모두 전벽돌 등으로 장식하였다.

낙선재 일곽의 모든 廳은 궁궐내 殿閣의 청들 처럼 우물반자로 구조체를 가리고 장식하였다. 특히 수강재의 우물반자에는 아름다운 문양이 그려져 있었는데 이것을 수강재 중수 상량문에서 '藻井'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마루 밑(하인방과 기단사이)을 토석재로 막을 때는 통풍구멍을 두어야 하는데 석복헌의 남서청, 석복헌 서행랑과 남행랑, 중행랑, 수강재 동행랑과 남행랑의 마루 밑에는 통풍구멍(고막이머름)이 없다. 이 곳은 개수가 많아 되어 원형이 어땠는지 알 수 없으나 낙선재 일곽의 조영 당시에는 분명히 고막이머름이 있었을 것이다. 그 외 낙선재 남행랑과 낙선재 북행랑, 석복헌의 남동청, 석복헌 동행랑, 취운정에는 고막이머름이 있다. 낙선재와 석복헌, 수강재의 마루 밑은 모두 통풍이 잘 되도록 고막이를 대지 않았다. 다만 세 건물 모두 전면에는 초석 사이에 장대석 디딤들을 놓아 시각적으로 고막이 구실을 하게 하였다. 또한 아궁이방 안에 들문이 달린 통풍구를 두어 주 건물의 마루 밑 통풍을 특별히 배려하였다. 다락마루의 밑은 아궁이 방으로 사용하고 낙선재 루와 수강재 루, 평원루의 바닥은 기단에서 높게 띄워 영건하였다.

보이지 않는 부분인 천정 속도 보이는 부분과 똑같이 마무리하고 대청 아래에도 전들을 깔았다. 담장과 건물이 만나는 부분은 반드시 나무로 만든 便門을 두어 담장이 처마 밑까지 들어와 기둥과 닿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건물의 구조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인 동시에 담장이 건물을 분리하지 않고 공간만을 구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4) 修粧

수강의 대표적인 예는 창호라 할 수 있다. 낙선재와 석복헌, 수강재 대청의 여단이 창호지문은 모두 들쇠에 매달 수 있어 필요에 따라 외부공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방의 문은 외부에 직접 면해서 내지 않고 청과의 사이에 두었다. 물론 방 주인은 후원으로 나있는 창으로도 출입이 가능하나 그 밖의 사람들은 반드시 청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외기에 접한 부분은 모두 삼중창으로 映窓의 안쪽(방안쪽)에 다시 맹장지를 설치하였다. 이것을 열었을 때는 두꺼비집 안으로 들어가 가려지고 닫았을 때는 두꺼비집과 맹장지 모두 벽지 바르는 종이로 두껍게 싸 발랐기 때문에 벽처럼 느껴진다. 머리벽장문과 다락으로 오르는 문 역시 맹장지이기 때문에 닫았을 때에는 벽과 같다. 두꺼비집에는 語句를 기록한 聯을 부착하였다. 맹장지문을 발랐던 종이의 배면은 모두 좋은 문구를 쓴 것이었다. 글 쓴 종이들을 모아두었다가 집을 영건할 때 사용한 것으로 궁궐건축의 특징이다.

방의 창문 바깥에 뿔마루가 있을 경우엔 퇴에도 이중창(덧문+영창)을 달아 추위를 막았다. 낙선재와 석복헌, 수강재에는 이런 퇴가 한 군데씩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주인의 침실임을 알 수 있다.

청, 루, 방이 대청과 인접할 때 각 실의 문은 문짝들을 접어 들쇠에 매달 수 있는 불발기이다.

낙선재의 창호는 창살에 拐子龍, 당초, 박쥐, 方勝 등의 문양을 넣어 현종의 수복과 장수를 기원하였다. 이 문양들은 매우 섬세하고 다양한데 없어진 문양들도 많고 조영 당시의 것과 확연히 구분이 되는 근래에 만든 듯한 문양들도 있다. 특히 동온실 앞퇴 창외의 괴자룡 장식은 현재 하나도 없어 지금의 모습이 원형인 것 같이 보이나 「조선건축도보」에 실린 사진에는 모두다, 1966년 「공간」에 실린 사진⁸⁰⁾ 속에는 두개가 남아 있다. 동온실 앞퇴 문의 괴자룡 장식은 현재 단 하나만

80) 임용식(1966): 「낙선재」, 「공간」(1966. 12.), p.52의 사진.

남아 있다. 낙선재 루 원창의 중앙에 있는 괴자룡 문양은 현재 약간의 조각만 남고 모두 없어졌는데 1966년 「공간」에 실린 사진⁸¹⁾ 속에는 온전한 것이 하나 남아 있다.

낙선재 동은실 사이에는 근자살에 문양이 끼워진 아름다운 문이 있었으나 현존하지 않는다. 다행히 「조선건축도보」에 그 사진이 실려 있어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현재 대청의 마단이문은 없고 문틀만 남아있지만 동은실문과 같은 것이었다.⁸²⁾

서온실방에는 창경이 끼워진 영창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전의 사진⁸³⁾에서는 이 위치에 창경이 없는 영창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금은 이 영창이 석복헌의 동은실에 설치되어 있지만 그 양식으로 보아 낙선재의 것임이 틀림없다. 석복헌과 수강재의 창호는 박쥐나 괴자룡, 당초문, 방승 따위의 문양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것이다.

석복헌과 수강재의 창호에는 낙선재의 것과 같이 화려한 곡선의 문양 없이 직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석복헌과 수강재의 경우는 조영 당시로 추정하는 자료를 구할 수 없어 조영 당시와 현재를 정확하게 비교·고찰할 수 없었다.

낙선재 일곽의 천정 중에서 장식이 된 곳은 수강재 대청과 평원루이다. 수강재 대청의 천정은 우물반자로 아름다운 단청문양이 그려져 있었다고 하는데,⁸⁴⁾ 현재 칠거되어 없다. 평원루의 천정은 연등천장이면서 천정중앙은 6각형의 우물반자다. 우물반자는 12개의 마름모꼴 소란반자를 끼워 만든 것으로 여러 길상문양들이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낙선재 일곽의 행랑을 제외한 모든 건물의 툇마루에는 난간이 사용되었는데⁸⁵⁾ 건물에 따라 그 구성양식이 조금씩 다르다. 평원루의 마루끝 난간은 鷄字欄干이고 그 외의 것들은 모두 交欄이다. 낙선재의 난간은 두겹대 받침으로 운두를 사용하였고 궁창부에는 박쥐문양도 끼워 넣었다. 이 문양들 중에는 근래에 만든 것으로 보이는 조각수법이 떨어지는 문양들이 있어 조영 당시의 것과 구별이 된다. 석복헌의 난간은 두겹대 받침으로

박쥐를, 궁창부에는 호리병을 끼워 넣었다. 낙선재 서행랑의 난간은 지금은 없으나 「조선고적도보」, 제10권(p.1423)에 실린 사진에서 볼 수 있다. 낙선재 서행랑 난간의 범수, 하엽, 궁창부 살무늬가 현재 취운정의 난간과 같다.

석복헌 전면 동쪽의 툇마루 아래에 설치된 여모판은 당초문양을 투각한 것이다. 대청 앞의 툇마루와 7자로 만나는 부분의 여모판은 전술한 것과는 달리 매우 단순하게 끝 부분만 곡선으로 조각하였는데 이와 같은 여모판이 낙선재에도 있었다. 지금은 없으나 「조선고적도보」, 제10권(p.1423)에 실린 사진에서 볼 수 있다. 낙선재의 서쪽 툇마루가 서행랑의 툇마루와 7자로 만나는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데 석복헌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다.

(5) 屋外空間

주건물별로 구분된 세 영역의 옥외공간은 각각 공간의 성격에 따라 다시 세 영역으로 구분된다. 건물과 담장으로 둘러싸인 공간, 화계와 건물 사이의 공간, 동산 위의 공간이 그것이다.

건물과 담장으로 둘러싸인 공간은 주건물로 들어가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간으로서 주건물의 주인에 따라 개방적이거나 혹은 보다 폐쇄적인 성격을 띤다. 주건물로 들어가기 전에 건물을 바라보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공간인 동시에 주건물내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볼 수 있는 공간이다.

화계와 건물 사이는 선경과도 같이 아름답게 꾸며진 후원이다. 경사지를 화계로 만들고 석분과 굴죽, 담장 등으로 장식하였다. 이 후원은 주인이 방 안에서 창외 머슴대만 넘으면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이지만 외부인이 이 곳에 들어가기 위해선 여러 개의 문들을 거쳐야 한다. 화계와 건물 사이

82) 신영훈·장경호(1988), p.209의 사진참조.

83) 임용식(1966), p.54.

84) 삼풍종합건축 박창렬 차장과의 대담.

85) 단, 낙선재 서행랑 중 남향한 間 앞의 퇴에는 난간이 있었다.

81) 위의 글, p.54의 사진.

의 공간은 밀폐된 공간이 아니지만 주인과 외부인의 동선을 구분함으로써 이 곳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게 계획된 것이다.

동산 위는 전술한 후원보다 개방적이고 자연스러운 공간이다. 낙선재의 동산에는 평원루와 서고, 석상이 있고 석복헌의 동산에는 조영 당시의 건물이 아닌 한정당과 괴석, 석대가 있다. 수강재의 동산에는 취운정이 있고 그 앞 나무에 화강암을 다듬어 만든 등근 태가 있다. 낙선재 일곽의 다른 나무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평원루는 낙선재 일곽의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루에 올라 낙선재 일곽과 종묘, 멀리 남산까지 조망할 수 있다.

낙선재 일곽의 옥외공간을 구성하는 여러 조영물 즉, 함문, 담장, 굴뚝, 석물 등은 길상문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특히 낙선재와 평원루를 둘러싸고 있는 담장은 대부분 화담으로 문양이 매우 다양하다.

낙선재 일곽의 후원에는 현재 전벽돌로 쌓아 만든 6개의 굴뚝이 있다. 그러나 이 굴뚝들은 일제시대 때, 혹은 그 후에 변형된 것들이다.

낙선재 후원의 굴뚝에는 도형화된 壽자 장식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 역시 마찬가지이다. 낙선재 동온실에서 후원을 내다보면 정면에 보이는 이 굴뚝은 조영 당시에는 이렇게 높지 않았다. 조영 당시의 모습으로 판단되는 굴뚝은 「조선고적도보」, 제10권(p.1422)에 실린 사진에서 볼 수 있다. 나지막하게 전벽돌로 만들었는데 전면에는 壽자들, 측면에는 歲자를 새겨 넣었고 기와지붕 위에 연가를 올렸다. 지금의 것은 3배가량 높아졌을 뿐 아니라 기와지붕도, 연가도, 측면의 歲자 문양도 없다. 歲자가 새겨진 반대쪽 측면에도 도형화된 문자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歲자와 壽자만으로는 뜻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추측하건대 반대쪽 측면에 萬자나 千자가 있어 '萬歲壽'나 '千歲壽'를 의미했을 것이다. 「조선고적도보」, 제10권(p.1422)에 실린 사진에서는 담장 너머로 석복헌 후원의 굴뚝이 보이는데 기와지붕만이 올라와 있다. 연가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이 위치의 굴뚝은 두배가량 높아졌고 기와

지붕 위에는 연가가 있다. 석복헌 후원의 굴뚝 중 동산 위에 있는 것은 현재 연가와 기와지붕, 몸체의 반이 낙선재 담장 위로 올라와 있다. 이것 또한 후에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석복헌 후원의 동쪽 모서리에 있는 굴뚝도 매우 높는데 지붕과 연가는 없고, 수강재 후원의 굴뚝은 몸체 위로 지붕없이 연가만 있다. 조영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으나 이것도 변형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화계의 수종 역시 일제시대 후 변형된 것이다. 「동궐도」에 묘사된 수많은 화계는 그 모습이 현재 낙선재 일곽의 화계와 사뭇 다르다. 「동궐도」의 화계에 심겨진 나무들은 그 수가 적을 뿐 아니라 수종도 판상수가 아니다. 창덕궁 후원의 여러 나무들과 똑같이 묘사되어 있다. 창덕궁 후원을 조사한 결과 조선조 말기 이 후원의 나무는 사철의 드나들이 완전한 식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신록과 녹음과 열매와 단풍이 아름다운 자연스러운 수종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다.⁸⁶⁾ 「한국의 건축과 예술」(p.262)에 실린 사진에는 낙선재 동산 위의 수려한 소나무들이 낙선재 지붕 위까지 뻗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동산 위에는 소나무들이 없고, 화계는 인공적인 관상수들로 가득 차 있다.

낙선재 일곽의 석물로는, 가장 많은 석분(9개)을 비롯하여 洗硯池(1), 물확(1), 석상(1), 석대(2), 나무태(1), 노뚝들(1) 등이 있다. 이 중 낙선재 후원에 있는 세연지와 8각평면의 석분에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서재 곁에 두고 버루를 씻는 세연지 전면에는 '琴史硯池'라고 새겨져 있다. 음악도 듣고 책도 보는 곳 즉, 낙선재에 있는 세연지라는 뜻이다. 석분의 뒷단에는 '小瀛洲'라고 새겼는데, '瀛洲'란 신선이 살고 불로의 영약이 있다는 삼신산(蓬萊山, 方丈山, 瀛洲)의 하나이다. 이 석분 위의 괴석에는 '立玉飛雲'이라는 글과 낙관이 새겨져 있다. '선 옥들에 나는 구름이라'는 글귀는 '소영주'와 함께 이 괴석이 서 있는 곳이 구름 위의 선경 즉, 영주임을 의미한다.

86) 정재훈(1978): 「창덕궁 후원에 대하여」, 「고고미술」, 제136·137호(1978. 3.), p.205.

III. 結論

이상은 樂善齋 一廓의 조영 배경과 조영 시기, 조영 목적 그리고 조영 당시 건축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종합 정리하여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昌德宮 東宮과 樂善齋 一廓

낙선재 일곽의 조영으로 동궐의 공간 성격과 구분내용이 변하게 된다. 즉, 창덕궁 동궁이 없어지면서 창덕궁 동궁의 영역이 창경궁에 속하게 되었다. 더욱이 창덕궁 동궁지에 낙선재 일곽이 조영됨으로써 이 영역은 동궁이 아닌 燕朝공간으로 형성된다.

憲宗은 즉위하여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왕세자의 공간인 창덕궁 동궁의 重熙堂과 誠政閣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창덕궁 동궁지에 자신의 燕寢과 후궁·대왕대비 치소인 낙선재 일곽을 조영하였다. 헌종은 결국 왕세자 없이 승하하고 창덕궁 동궁은 동궁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 채 현재까지 이른다. 창덕궁 동궁이 없어지게 된 것이 전적으로 낙선재 일곽의 조영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다. 숙종 연간에는 동궁내에 錫福軒과 같이 嬪의 치소가 영건된 일이 있었고, 수강재도 東朝의 치소라는 창덕궁 동궁의 특수한 기능에 부합하는 건물이다. 창덕궁 동궁이 없어지게 된 주된 원인은 창덕궁 동궁을 사용할 왕세자가 익종 이후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헌종이 동궁을 사용하고 동궁지에 자신의 연침을 영건한 것은 미래 한나라의 임금이 될 왕세자의 생활공간인 창덕궁 동궁이 없어지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된다. 동궁을 사용하고, 동궁지에 자신의 연침을 영건하고, 동궁에서 승하한 임금은 오직 헌종 뿐이다. 결국 사양길에 걸고 있었던 조선왕조의 어린 임금에 의해 동궁인 중희당 일곽은 임금의 便殿으로 사용되고, 중희당 동쪽의 동궁지는 연조공간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2. 조영 시기와 목적

낙선재 일곽은 크게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樂善齋를 중심으로 하는 영역과 錫福軒을 중심으로 하는 영역, 그리고 慶康齋를 중심으로 하는 영역이 그것이다. 이 세 영역은 함께 계획되었으나 영건년도와 목적은 다르다. 낙선재 영역은 헌종 13년(1847)에 헌종의 연침으로서 조영되었다. 석복헌 영역은 헌종의 후궁인 慶嬪金氏의 처소로서 헌종 14년에 조영되었다. 그리고 수강재 영역은 정조 9년(1785) 양위한 임금의 처소인 慶康宮 터에 같은 이름으로 조영된 후 헌종의 할머니인 대왕대비 純元王后의 처소로서 석복헌과 같은 해(헌종 14년)에 중수되었다. 낙선재 일곽을 조영하게 된 주된 계기는 헌종 13년에 당시 조종에서 가장 바라던 일인 새자의 탄생을 성취시켜 줄 수 있는 헌종의 새 부인을 맞아드린 일이다. 그러므로 왕세자를 잉태할 경빈김씨의 처소로서 석복헌을 계획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석복헌 바로 곁에는 헌종 자신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낙선재를 석복헌과 함께 계획하였다. 낙선재와 석복헌이 영건될 터는 이미 영건되어 있었던 수강재의 서쪽이다. 당시 헌종은 경빈김씨의 간택을 하고한 대왕대비 순원왕후를 할머니로 모시고 있었다. 순원왕후는 수렴청정을 행했던 국모로서 헌종 14년에 육순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순원왕후의 거처가 될 수강재의 중수는 수렴청정에서 물러난 할머니의 육순을 기념하여 손자·손부의 거처인 낙선재·석복헌의 영건과 함께 이루어진 것이다.

3. 조영 당시의 樂善齋 一廓

창덕궁 동궁지에 위치하는 낙선재 일곽은 동산으로 감싸인 곳에 조영되어 동산의 경사지와 동산 위가 옥의공간으로 충분히 활용되었다. 卽坐未向의 낙선재, 석복헌, 수강재가 동서로 나란히 늘어서 있고 이 주건물들을 여러겹의 행랑채들이 보위하고 있다. 주건물의 평면의 구성요소들은 같지만 주인에 따라 세영역의 성격이 모두 다르다.

현종의 연침인 낙선재 영역은 당시 현종의 편전들과 가깝게 위치하며 바로 중회당 일곽으로 진입할 수 있게 계획되었다. 낙선재는 지형이 높은 서쪽에 위치하였을 뿐 아니라 건물의 기단과 지붕도 석복헌과 수강재보다 높다. 행랑채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독립채로서 석복헌과 수강재에 비해 진입이 용이하고 솟을대문인 長樂門을 들어서면 주건물이 한 눈에 들어온다. 낙선재의 침실은 동운실이고 주위 행랑은 대부분 서화를 수장하는 곳이다. 낙선재 후원 동산에는 높다란 平遠樓가 영건되어 있고 낙선재 영역에는 측간이 없다. 낙선재와 평원루의 도리는 모두 굴도리이고 공포가 사용된 겹처마집이다. 낙선재의 창호의 창살은 拐子龍과 당초, 박쥐, 方勝 등의 길상문양으로 장식되었다.

경빈김씨의 처소인 석복헌은 후궁이 임금과 대왕대비를 가까이에서 모시게 하기 위해 낙선재와 수강재 사이에 영건되었다. 석복헌은 낙선재와 수강재보다 더 많은 행랑채들로 겹겹이 감싸인 마자형 배치를 하고 있어 일곽에서 가장 깊은 공간이다. 석복헌에 이르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문들은 모두 일직선상에 있지 않아 출입자의 시선으로부터 주건물을 보호한다. 석복헌의 침실은 서운실이며 마주하고 있는 낙선재의 침실과 좌우대칭이다.

순원왕후의 처소인 수강재는 동쪽에 위치하여 창경궁에서 진입하게 하였고 수강재에서 通明殿-廊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게 계획되었다. 수강재에 이르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문들도 모두 일직선상에 있지 않고, 壽康門은 수강재에서 90도 꺾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들어섰을 때 건물을 정면으로 볼 수 없게 계획되었다. 낙선재의 櫺가 외향적이고 개방적인 반면 석복헌과 연결된 수강재의 櫺는 내향적이고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수강재는 석복헌과 같이 굴도리와 남도리를 혼용하고 공포없는 소로수장집에 출처마이다. 수강재는 주건물 중 유일하게 단청을 한 건물로 대청의 천정까지 단청문양을 넣어 장식하였다.

4. 건축적 특성

조영 당시의 낙선재 일곽의 건축적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낙선재 일곽은 임금과 후궁, 대왕대비의 처소로서 터가 지나는 자연조건만으로도 하나의 영역을 이루는 곳 즉, 북동쪽의 높은 동산과 남서쪽의 나지막한 동산에 감싸인 곳에 조영되었기 때문에 주변과 자연스럽게 구분될 뿐 아니라 매우 아늑한 곳이다.

둘째, 주건물들과 이들을 연결시키고 둘러싸는 수많은 행랑채들(행랑채들 중 대부분은 현존하지 않는다)은 정연한 격자형의 틀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실들의 연결은 매우 자유로와 변화가 많고 다양한 공간을 구성한다.

셋째, 낙선재 일곽은 연조공간 중에서도 왕과 왕비의 정당이 아닌 임금이 평상시 편안하게 거처할 수 있는 연침과 후궁·대왕대비의 처소로서 조영되었기 때문에 건물의 구조체는 상류주택과 같이 소박하고 단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강재는 선왕이 조영한 건물을 중수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전의 건축체도를 따라 단청을 하고 내부의 천정까지 화려하게 꾸몄다.⁸⁷⁾

넷째, 낙선재 일곽은 국왕의 이상적인 주거지로 조영되었기에 창호, 천정, 난간, 여모판, 화방벽, 합각, 기와, 화담, 굴뚝, 석물 등이 이곳에 거처하는 현종, 경빈김씨, 순원왕후의 다복, 다산, 안녕을 기원하는 내용의 많은 길상문양들로 장식되어 있다.

다섯째, 낙선재 일곽은 높은 동산에 기대어 조영되었는데 이 동산에 직선을 기본으로 한 정연한 화계를 놓고 굴뚝, 화담, 합문, 석물 등과 소나무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산야에서 볼 수 있는 나무들로 아름다운 후원을 꾸몄다.⁸⁸⁾

87) 1992년 복원공사 이후로 수강재의 단청은 지워지고 낙선재·석복헌·수강재 대청의 우물받자는 모두 철거되었다.

88) 필자는 이 기회에 『元軒稿』 자료를 소개해 준 서울대학교 강사 洪淳民선생과 상량문 번역을 도와 준 민족문화추진회 전문위원 安鉉선생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참고문헌

- 「東闕圖」.
- 「東闕圖形」.
- 「宮闕志」, 서울史料叢書 第3卷,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編), 서울: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影印本, 1957.
- 「宮闕志」, 藏書閣藏本.
- 「閑中錄」, 樂(第2卷), 藏書閣藏本.
- 「元軒稿」.
- 「錫福軒 上樑文」.
- 「成宗實錄」, 世宗大王記念事業會(譯), 서울: 世宗大王記念事業會, 1983.
- 「仁宗實錄」, 民族文化推進會(譯),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86.
- 「明宗實錄」, 民族文化推進會(譯),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86.
- 「仁祖實錄」, 民族文化推進會(譯),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90.
- 「肅宗實錄」, 世宗大王記念事業會(譯), 서울: 世宗大王記念事業會, 1987.
- 「英祖實錄」, 世宗大王記念事業會(譯), 서울: 世宗大王記念事業會, 1992.
- 「正祖實錄」, 世宗大王記念事業會(譯), 서울: 世宗大王記念事業會, 1993.
- 「純祖實錄」, 世宗大王記念事業會(譯), 서울: 世宗大王記念事業會, 1993.
- 「憲宗實錄」, 世宗大王記念事業會(譯), 서울: 世宗大王記念事業會, 1990.
- 許維: 「小癡實錄」, 金泳鎬(編譯), 서울: 瑞文堂, 1976.
- 關野貞(1905): 「韓國의 建築과 藝術」, 姜奉辰(譯), 서울: 産業圖書出版公社, 1990.
- 金用淑(1987): 「朝鮮朝 宮中風俗 研究」, 서울: 一志社.
- 文化財管理局(1991): 「東闕圖」, 서울: 文化財管理局.
- 文化財管理局(1977): 「文化遺蹟總覽」, 上卷, 서울: 文化財管理局.
-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1963): 「서울特別市史-古蹟篇」, 서울: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 申榮勳·張慶浩(1988): 「韓國의 古宮建築」, 서울: 悅話堂.
- 張順鏞(1990): 「昌德宮」, 서울: 大圓社.
- 鄭腫昨(1986): 「韓國의 庭園」, 서울: 民音社.
- 朝鮮總督府(1930): 「朝鮮古蹟圖譜」, 第10卷, 朝鮮總督府.
- 韓國精神文化研究院(1991):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 第21卷, 京畿道 城南: 韓國精神文化研究院.
- 金斗憲(1985): 「昌德宮의 건물들」, 『建築文化』(1985. 1.).
- 林應植(1966): 「樂善齋」, 『空間』(1966. 12.).
- 張順鏞(1994): 「세월의 뒤안길에 선 樂善齋」, 『建築과 環境』(1994. 5.).
- 鄭在鏞(1978): 「昌德宮 後園에 대하여」, 『考古美術』, 第136·137號(1978. 3.).
- 李康根(1994): 「가장 한국적인 궁, 昌德宮」, 『建築과 環境』(1994. 9.).

A Study on the Original State of the Buildings in NakSunJae Area.

Noh, Jin-Ha

(Sung-Kyun-Kwan University, Graduate student)

Lee, Sang-Hae

(Sung-Kyun-Kwan University, Professor)

ABSTRACT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the architectural purpose of the buildings in NakSunJae area to the original state. Through the investigation, the clarified facts are as follows.

1. The relation with the buildings for the Crown Prince in the ChangDok Palace

By constructing buildings in the NakSunJae area, the spatial conception of the Royal Palace was changed, that is, buildings for the Crown Prince in the ChangDok Palace disappeared and they became to belong to the ChangGyeong Palace. Moreover, by constructing the NakSunJae and its attached buildings, the area for the Crown Prince shifted to use as a private area for the king.

2. The date and the purpose of the construction

The NakSunJae area is consisted of three compounds of building: NakSunJae, SukBokHun and SooKangJae. The NakSunJae was constructed for the king HunChong's private occupancy in 1847 and the SukBokHun for a residence of a royal concubine Kim, in 1847. The SooKangJae was originally built in 1785 in the SooKang Palace where the ex-king took up as his residence after abdicate the throne. Later on, it was repaired as the residence of the Queen SoonWon, king HunChong's grandmother, in commemoration for the 60th anniversary of her birth in 1848.

3. Architectural features of the NakSunJae area at the time of construction

First, as the NakSunJae area is surrounded by quite high hills in northeast and by low hills in southwest, it is naturally distinguished from its surroundings and gives a cosy feeling. Second, the NakSunJae area shows very untrammled style of arrangement in general, because it was constructed as a private occupancy for the king. Other buildings are arranged in the latticing orderly, nonetheless, they are free by themselves from a strict form and make themselves an area full of variety. Third, the buildings in the NakSunJae area have a characteristic of naivety of common people's houses, because they were not an official but private place for the king, his concubine and his grandmother. Forth, the ornaments in the NakSunJae area are variously, elegantly and harmoniously patterned with the meaning of good luck. Fifth, back garden in the NakSunJae area was made by taking advantage of sloping hills. The back garden is beautifully configurated by arranging various constituent elements of pavilions, tiered flower beds, chimneys, decorated walls, small doors between walls, stoneworks and trees.